

2011-05 연구보고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이주여성의 참여를 중심으로 -

권 금 상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여 다인종·다민족국가로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분단 현실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유입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사회화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민 대상의 지원 정책을 통해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충남은 다문화가족대상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와 다문화가정의 안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결혼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 다문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을 동화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여 ‘다문화 없는 다문화사회’ 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주민들의 주도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정책 제언들이 충남지역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구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중에도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주여성 과 실무자, 자문과 평가를 해주신 내·외부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권금상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12.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민경자

연구 요약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화 현상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 등으로 국내 외국인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불균형으로 이주여성 중심으로 유입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미래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적인 구성원이므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활동에 관련한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둘러싼 참여의 제반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무자들로부터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 다문화 관련 연구물
 - 다문화가족 관련 행정안전부 통계

● 면접조사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거주 3년 이상의 이주여성 20명과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실무자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3. 주요개념과 분석틀

- Berry(1987)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적응을 추진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참여 활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참여수준에 따라 공식적 참여, 준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사적인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공적인 영역: 사회적 행사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종교참여, 시민사회 조직 참여
- 사적인 영역: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 일대일 대면적 원조

- 조사 대상을 이주여성과 실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배경(출신국, 교육수준, 경력)과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활동의 내용과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성격, 지역사회 참여에서 선택의 기준, 가족의 지지여부, 어려움 등)을 파악함.

II.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정책

1. 다문화사회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2%로 '10년(125,087명) 대비 16,567명 증가(13.3%)함.
- 충남의 외국계 주민 수는 57,869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 2,075,514명 대비 2.8%를 차지하여 시도별 인구 대비 전국 4위의 순위를 차지하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10,254명으로 전년 8,781명 대비 16.8% 증가하여 불과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급속한 증가를 나타냄.

2. 다문화 정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한국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함.
-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시군에 소재한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기적응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Ⅲ. 총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현황

1. 이주여성 집단

- 이주여성 참여자의 평균거주 기간은 7.9년으로 언어소통과 한국문화적응에 대체로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었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간은 3.4년으로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집단이었음.
-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교활동,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 등 사적영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 자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을 돕는 이타적인 실행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참여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단계는 Berry가 제시한 문화적응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해결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2. 실무자 집단

- 실무자집단 참여자는 다문화 관련한 업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민과 관의 담당 실무자들로서 다문화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과 관의 다른 구조에 의해 같은 주제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나 혹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 민과 관이 함께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매우 취약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지원 정책 방향

- 지역의 필요와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민관합치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담보 된 지역사회 참여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복지시야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으로 이끌어 갈 지원방안과 입국시기가 다른 이주민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2. 정책적 제언

-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이끄는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평등한 구조로서 다양한 이주민 인적 자원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과 동시에 이주민들의 다양한 정착기 고려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 충남 지역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원 정책, 충남 이주민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 충남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형 지역사회 참여지원 정책을 제언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는 2012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 속에서 적합하며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유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1. 연구방법	6
2. 연구대상 및 시기	7
3. 연구절차	10
4.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점	11
제2장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제1절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유형	15
1. 개념 및 정의	15
2.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	16
3.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의 유형	18
4. 분석틀	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1. 사회통합의 관점으로서의 이주민에 관한 연구	20
2. 문화소수자 관점으로서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20
3. 한국의 다문화 담론을 파악한 연구	21
4.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22
5. 선행연구 종합	23

제3장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정책	25
제1절 다문화사회 현황	27
1.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27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	31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34
1.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 현황	34
2.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37
4장 충남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심층 분석	41
제1절 조사연구 방법	43
1. 심층면접 대상과 조사 방법	43
2. 심층 면접 내용	46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분석 결과	48
1. 이주여성 집단 현황	48
2. 실무자 집단 심층면접 결과 분석	6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9
제1절 결론 및 논의	81
1. 결론	81
2. 논의	82
제2절 정책적 제언	88
1. 정책 방향	88
2. 정책 과제	89
참 고 문 헌	94
부록 1	96
부록 2	97

표 목 차

〈표 1〉 장 별 연구의 주요내용	5
〈표 2〉 서면조사의 주요 내용	8
〈표 3〉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9
〈표 4〉 연구 수행 절차	10
〈표 5〉 이주민 수용 모델과 지역사회 공동체	17
〈표 6〉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	18
〈표 7〉 연구의 분석틀	19
〈표 8〉 외국인주민 연도별 변동 추이	27
〈표 9〉 유형별 현황	28
〈표 10〉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비율	29
〈표 11〉 ‘09~ ‘11년 유형별 증가추이	29
〈표 12〉 외국인 주민 시도별 거주 비율(%)	30
〈표13〉 충남도 다문화가족 추이와 현황	31
〈표 14〉 충남 외국계주민 조사 총괄표 총계	32
〈표 15〉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 총계	33
〈표 16〉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행계획 과제 수행 예산	34
〈표 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	36
〈표 18〉 심층면접 대상 이주여성 집단의 개인적 배경	44
〈표 19〉 심층면접 대상 실무자집단의 소속기관 현황	45
〈표 20〉 이주여성 집단 대상의 심층면접 질문 내용	46
〈표 21〉 실무자 집단 대상의 심층면접 질문 내용	47
〈표 22〉 참여 이주여성의 국적	48
〈표 23〉 참여 이주여성과 배우자 연령	48
〈표 24〉 참여 이주여성의 학력	48

<표 25> 참여 이주여성의 자녀수와 시부모 동거인 수	49
<표 26> 참여 이주여성 본국에서의 직업	49
<표 27> 참여 이주여성 남편의 직업	49
<표 28> 참여 이주여성의 현재 직업	50
<표 29> 참여 이주여성의 결혼 경로	50
<표 30> 2012년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1	90
<표 31> 2012년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91
<표 32> 2012년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3	92
<표 30>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9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사회는 세계화 현상과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 등으로 국내 외국인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불균형으로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유입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로 지칭되는 농가인구 비율이 1970년대 우리나라 총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5%였으나 1995년 10.9%, 2000년에는 8.7%, 2009년에는 6.4%, 10년 뒤에는 5%선 미만으로 지역사회 인구 구성의 지속적 감소 예측됨.
- 전통적인 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결혼이주여성과 제2세들의 등장으로 규범적인 형태의 인구구조로부터 해체와 와해로 이끌고 있어 결혼이주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역량강화와 인적개발 차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초기 디딤돌을 형성하는 가족 내에서의 사적차원의 적응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지역사회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으로 필요함.

- 늘어가는 농촌의 지역사회에 이주여성들은 미래 농촌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적인 구성원이므로 지역의 일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기인함.
- 지역사회에 참여를 통해 새로운 현실의 여건을 극복하고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이주민들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개입 가능한 효과적 지원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2) 목적

- 충남지역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활동에 관련한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둘러싼 참여의 제반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실무자들로부터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 현황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충남지역 내 이주여성과 다문화지원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이주여성과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참여의 현황을 파악함.

-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제1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써 지역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 본연구의 주요개념인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선행연구를 고찰함.
- 제3장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충남다문화가족의 현황을 고찰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사업과 충남도의 정책과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여성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와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 함.
-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 다문화가족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맞는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제언함.

<표 1> 장 별 연구의 주요내용

영역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연구배경, 목적, 연구방법
제2장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의 개념, 범위, 논의, 선행연구 고찰
제3장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현황, 충남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중앙 및 충남도 지원정책분석
제4장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참여 현황	이주여성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와 심층조사 결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참여의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통계 자료 분석

-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고찰함.
- 충남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현황조사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활동에 관련한 연구들을 분석함.
-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 지역사회 내 여성들의 네트워크나 관계망등 기본적인 개념을 기존연구들을 검토함.
-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수집 분석함.

2) 서면조사 및 심층면접

-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점, 문제점 및 정책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질적인 연구방식임.
- 일반현황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조사 외에 정량화 할 수 없는 주관적인 내용을 동시에 파악 할 수 있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이주여성을 둘러싼 환경이나 경험과 제언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반구조화 개방형 설문지로 작성함.
- 이주여성 집단과 실무자 집단으로 조사를 이원화함.

- 이주여성 집단 참여자 선정은 통계표집이 어려우므로 충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도내 다문화 관련 지원활동 단체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을 실시함.

2. 연구대상 및 시기

1) 연구 대상

가. 서면조사

- 이주여성 집단 대상

-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한국사회 적응기간과 언어습득 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주 3년 이상이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 중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충청도에서 지역통신원, 강사, 자조모임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직접 찾아가 질문지의 의도를 설명하여 작성 후 인터뷰하거나 회신을 메일로 받음.
- 센터나 다문화관련 종사자들로부터 추천받은 이주여성에게는 메일을 발송하여 회수함.

- 실무자 집단 대상

- 실무자 집단 대상의 질문지는 센터장이나 협회 등 단체장을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함.

- 이주여성과 실무자 대상의 주요 조사 내용

- 이주여성 집단에 실시한 주요 조사 항목은 여성 개인의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 활동 내용.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동기 및 경로, 어려움, 기대치 가족의 지지 여부, 경험에 대한 느낌. 바램 등임.
- 실무자 집단에 실시한 주요 조사 항목은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과 한계점, 실무자의 경험,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등임.

<표 2> 서면조사의 주요 내용

대상	주요 조사 항목
이주여성	일반적 특성, 지역사회 활동 내용.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동기 및 경로, 어려움, 가족의 지지여부, 경험에 대한 느낌. 바램, 기대치
실무자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및 제한점, 실무자의 경험,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나. 심층면접

● 이주여성 대상

- 서면조사로는 다 파악 할 수 없는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개인적인 관점을 다각적인 관점으로 참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조사방법임.

● 실무자 대상

- 서면 상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기관 내외부의 어려움이나 부연설명 혹은 정책 제언 등을 조사함.
- 서면조사에서 누락된 문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임.

●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 이주여성대상의 주요조사 내용은 추가 질문 사항과 지역사회활동의 어려움과 가족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 바램 등임.
- 실무자 대상의 주요조사 내용은 추가 질문 사항과 지역사회참여 현황에 대한 실무자 입장에서의 논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논의, 활성화 방안 등임.

<표 3>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대상	주요 조사 항목
이주여성	지역사회활동의 어려움과 가족참여 방안, 개선안
실무자	지역사회참여 현황에 대한 실무자 입장에서의 논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논의, 활성화 방안

다.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진행을 위해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관련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회의를 진행함.
- 1차 자문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의뢰하고, 2차로는 전문가들에게 연구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라. 정책적 제언탐색

-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1년 실시한 충남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2012년 실행할 사업의 범주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언으로 도출함.

3. 연구절차

- 본 연구는 진행을 위해 연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관련기관 방문 및 연구 참여대상 선정,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제안 제시 및 전문가 자문회의 과정의 5단계로 나눔.
- 5단계에서의 연구 내용은 연구방향 및 내용구성, 선행연구, 문헌, 통계자료, 지원정책 자료 분석, 조사대상자 선정, 서면조사 및 심층면접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를 거쳐 주요 결과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기술하는 과정으로 조직되었음.
- 총체적인 연구 수행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연구 수행 절차

연구단계	연구 방법	연구 내용
1단계	연구 설계	연구방향 및 내용구성
2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선행연구 검토 •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황 분석
3단계	관련기관 방문 및 연구 참여 대상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설명 및 조사 대상 추천 • 연구 참여자 선정
4단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작성배포, 서면조사 후 대상에 따라 추가 질문을 위한 심층 면접 실시
5단계	분석, 정책제안 제시 및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 •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 기술

4.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연구가 다문화가족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순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피해자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활동하는 현황과 증진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 조사대상을 이주여성 집단과 업무 전문가집단으로 이원화하여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수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에서 파악하였으며 정부주도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민간주도의 이주민단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 하여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찾음.
- 대부분 선행연구들이 전국단위의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방법에 있어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조사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중점을 둔 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나 기관마다 각기 다른 환경을 살피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시도하였음.
- 제한점으로는 지역사회 활동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여성들 중에서 선발하거나 혹은 활동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이주 여성을 센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았으므로 모든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유형으로 일반화 할 수 없음.

제 2 장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유형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2장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및 정의

-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의 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총체를 의미함(Palmore,1981: 박정은, 1994).
- Berry(1987)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적응을 추진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사회참여 활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왔음.
- 지역주민들의 협력적인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연대의식(sense of community)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며 지리적인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와 기능적인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로 구분 함(Rouse, 1967).
- 지역사회는 특수성과 분리성을 지닌 지역적인 경계를 지나고 사회적 동질성, 합의성, 자조성 등의 상호작용을 하므로 지리지기인 지역사회, 동질적인 지역사회, 자연적인 지역사회로 정의 함(최일섭 · 류진석, 1996).
-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의
 - 정상적 기능수행과 안정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 문화 · 경제적 적응의 장 임. 비공식적 지원체계이며 대인관계망인 이웃, 공식적 지원체계로서의 사회복지와 서비스, 교육기관의 소재지이며 취업 현장이며 지원의 중심이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근접한 환경 임(윤혜미, 2009).

● 참여의 일반적 정의

-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영역의 결정에 효과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어떤 공동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과정임.
-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네트워크, 강한 지역 사회 연대감,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 자발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증가함.

2.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

- 사회참여 활동은 참여수준에 따라 공식적 참여, 준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눌 수 있음.
-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활동은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전체사회의 운영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성원으로 존재를 확인하거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함.
 - 공적인 영역: 사회적 행사참여, 직업적 역할 참여, 종교참여, 시민사회 조직 참여.
 - 사적인 영역: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 일대일 대면적 원조.
- 수용방식에 따른 이주민 공동체 형성 유형(황정미, 2009).
 -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동화, 차별적 배제, 다문화주의 유형의 각기 다

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Castle, 2002) 이는 이주민의 지역사회참여 유형에도 적용이 됨.

- 동화 유형에서는 이주민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주류 안에서의 통합만을 요구함.
- 차별적 배제 유형에서는 이주민의 일정부분만 통합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주민 공동체를 차별하고 부정적 낙인을 부여함. 이주민들은 이러한 배제에 대응하기위해 초국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와는 소통하지 못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됨.
- 다문화주의 유형에서는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민 공동체를 존중하며 이주민들이 형성한 초국적 공동체는 개방된 상태로 지역사회의 상호소통이 가능함.
- 이주민의 수용방식에 따른 유형과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관성을 이주민의 지역사회참여와 연관시키면 다음과 같음.

<표 5> 이주민 수용 모델과 지역사회 공동체

이주민 수용모델	주류(지역사회)공동체	이주민 동족 공동체	초국적 공동체
동화	주류지역사회로의 동화와 통합 요구	종족 공동체 불인정(동화의 장애물)	
차별적 배제	주류 지역의 일정한 부분 안으로 통합, 다른 부분은 배제	소수민족 공동체에 대한 차별, 배제, 낙인	폐쇄된 공동체(closed-off communities)
다문화주의	주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호작용, 공존(개인 단위가 아닌 문화 공동체 단위의 소통)	- 소수 민족 공동체에 대한 존중(사적영역/공적영역) - 다양한 민족공동체의 문화적 독자성 인정할 경우 공존 문제	세계 시민적 공동체(cosmopolitan communities)

자료: Castle,2002: 황정미, 2009 재인용

-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를 참여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목화함. 예컨대 교육 및 문화 영역활동(한국 문화배우기, 한국어 교실, 문화강습, 동아리 활동, 컴퓨터 교육, 다문화이해 강사 교육, 이주여성리더십교육, 다문화연구 모임, 전통음식 나눔 등)과 자녀교육 활동(학부모회, 자녀학습 관련 모임), 지역주민 활동(부녀회, 마을 농업공동체 활동, 지역봉사 활동, 다문화강사, 상담 등), 지자체 관련 활동(도청, 시청의 이주민 프로그램, 지역통신원, 다문화홍보 등)이주민 단체 활동(자조모임, 이주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분류됨.

<표 6>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

활동 영역	내용
교육·문화	한국 문화배우기, 한국어 교실, 문화강습, 동아리 활동, 컴퓨터 교육, 다문화이해 강사 교육, 이주여성리더십교육, 다문화연구 모임, 전통음식 나눔
자녀교육	학부모회, 자녀학습 관련 모임
주역주민	부녀회, 마을 농업공동체 활동, 지역봉사 활동, 다문화강사, 상담
지자체 관련	도청, 시청의 이주민 프로그램, 지역통신원, 다문화홍보
이주민 단체	자조모임, 이주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활동

3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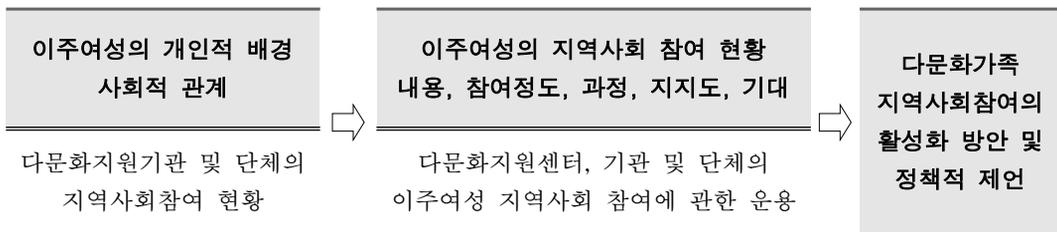
-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 해가는데 참여 수준에 따라 공식적 참여와 준공식적 참여, 비공식적 참여로 나눔.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회참여 활동은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생계유지 수단이 되거나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운영방향과 내용에 관여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확인하거나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함(제주발전연구원, 2006).

- 2006년부터 개설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나 통번역사나 다문화강사 등 이주여성이 주체가 되는 경제사회적인 활동 뿐 아니라 자조 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대체로 농촌에서는 농업활동, 그 외 지역사회 활동은 취업활동의 차원과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관련이 있는 공공적인 활동, 봉사, 상담, 자조모임, 각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과 민간단체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모임까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범주화함.

4 분석틀

-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조사대상을 이주여성과 실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원화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배경(출신국, 교육수준, 경력)과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활동의 내용과 관계를 형성하는 집단의 정체성이나 성격, 지역사회 참여에서 선택의 기준, 가족의 지지여부, 어려움 등)을 파악함.

<표 7>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통합의 관점으로서의 이주민에 관한 연구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적 관점은 전통적으로 분리주의, 사해동포주의, 동화주의의 세 가지 관점과 정책으로 설명되어 왔음(Castles & Davidson, 2000; 조상식, 2009 재인용).
- 세계화로 인해 이주 인구의 규모나 양상이 변화하여 주류문화로 동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관계적 지표’를 통해 ‘통합’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관점이 제시 됨(Ireland 2004; Lister et al, 2007).

2. 문화소수자 관점에서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

-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으로 다문화사회는 문화 간 ‘차이’를 동등한 ‘다름’으로 이해하여 차별을 줄여 나가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면서 문화 간의 공존을 상상할 때에 현실화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문화소수자로서 불평등한 통합의 대상으로 위치함(김영란, 2008; 김현미, 2008).
- 이주민에게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들이 새로운 문화와지속적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임(Redfei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 이주여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화적응을 경험하는데, 이주여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경험하는 집단차원에서의 문화적 적응과 다른 하나는 이주여성 각자가 개인적으로 겪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화적응임(Berry, 2005).

- 이주여성이 이주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이민자의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에 기호, 음식, 언어상 유사성이 높을수록 이주 문화습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Minde, 1985).
- 교육적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에 대한 정보와 사회경험의 가능성이 높아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지적 및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문화 습득이 순조롭게 이루어짐(Berry and Kim, 1987).
- 이주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원주민들과의 대화, 사교모임 참여, 스포츠모임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이주문화 습득의 어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Berry and Blodel, 1982).

3. 한국의 다문화 담론을 파악한 연구

- 한국 사회는 한국에 정착하는 이민자 집단인 결혼이주여성을 평등하게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대중매체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여성 틀에 이주여성들이 일방적으로 끼워 맞춰지고 있어 불평등한 통합이라는 지적(김현미 · 김민정 · 김정선, 2008).
- 한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급격히 부각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고 지적함(김혜순, 2006).
- 한국의 다인종 다민족사회로 이행함에 있어 순혈주의와 민족주의가 다문화사회에 직면한 문제의 근원으로 파악함(한경구 · 한건수, 2007).
-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로 협소하게 전이되어 간다는 주장(윤인진, 2007).

-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의식 결여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데 경직성을 드러내, 문화수용에서 이분법적인 관점이 작용하여 이주여성의 타자화가 공고히 된다는 주장(이수자, 2004).
-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현상을 조망함에 있어 한국사회가 가진 문화적 특수성을 가부장주의와 혈통주의로 파악함(문경희, 2006).
- 다문화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와 이주자 집단 간의 ‘공정한 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김남일, 2007).
- 국내 다문화주의 정책이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적응이나 저출산 위기 탈피를 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법적, 문화적 차별을 개선하려는 전면적인 정책적 지향이 없음을 지적함(김현미·김영옥·김민정 2008).

4.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

- 이주와 공동체 형성 흐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의 이주는 영주 거주형 이주, 일시적 노동이주, 난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이주의 증가로 양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특정유형으로 분류가 어려운 형태들이 나타남(Castle, 2000).
- 사회참여 활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는 총체를 의미함.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서 55.3%가 본인 집의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 집과 다른 집에서 농사일을 경험한 경우는 7.6%, 본인 집과 다른 집 모두에서 농사일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7% 로 나타남(양순미 외, 2009).

-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참여 조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역(경기도 안산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이주여성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부녀회 등에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참여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양애경 외, 2007).
- 국제결혼이민자 중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6.3%, 조선족 이민자는 한국인 중심, 몽골국적이민자는 모국인 중심, 일본국적 이민자는 모국 및 한국인 중심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음. 배우자 가족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7.8%로 가장 높고 본인 가족모임, 본국 출신친구 모임이 62.2%, 학부모 모임 58.2%, 지역주민 모임 23%등으로 나타남(박재규, 2010).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가와 취미활동을 모국인 위주로 하고 있음. 시민단체 가입경험은 5.3%로 나타났는데 혼인 상태에서 유배우보다 사별한 경우, 체류기간이 길수록, 국적을 취득한 경우일수록 시민단체 참여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출신국 별로는 일본과 필리핀(11.0%)이 국내 시민단체에 가입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김은숙, 2010).

5. 선행연구 종합

- 이주민들이 처한 한국 내에서의 환경은 문화적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의 양육문제, 돌봄노동 부과와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통제, 소외감,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참여의 부족 등이 전반적인 이주민의 환경으로 집약됨.
- 선행연구의 동향은 이주민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공동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고자 하는 동화적인 참여자로서 대상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학문적으로 양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주로 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단선적인 정책평가와 이주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나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업부진 문제 등 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어, 여러 국가로부터 온 이주민을 문화 다양성의 주체로, 사회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적음.
-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거주지역이 결정되므로 이주여성에게 있어 지역사회로의 공간의 배치는 여성의 삶 전체를 결정짓게 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함.

제 3 장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정책

제1절 다문화사회 현황	27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	31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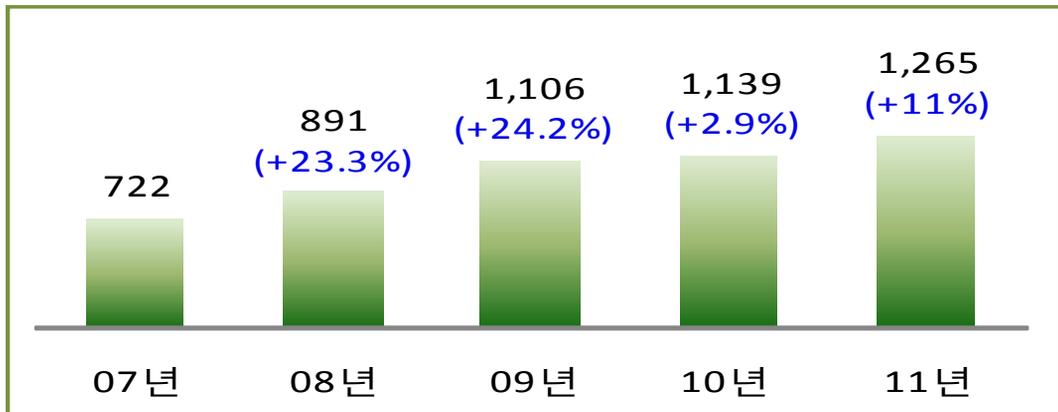
제3장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정책

제1절 다문화사회 현황

1. 외국인 주민 인구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 2010년 1,139,283명보다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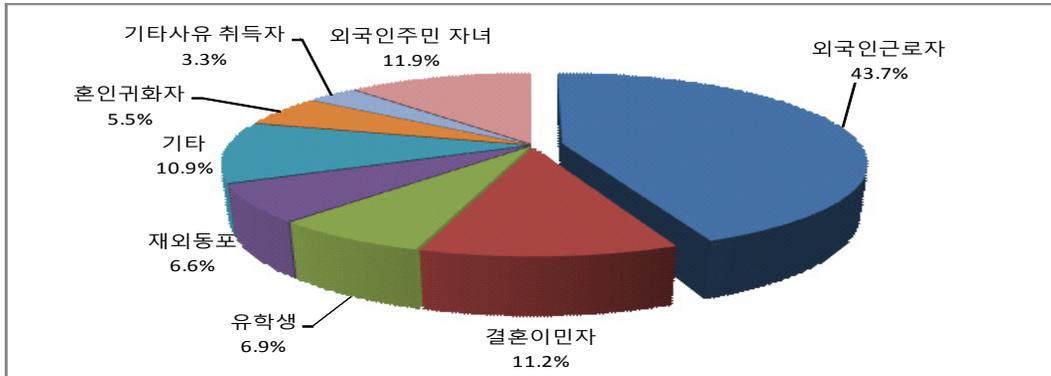
<표 8> 외국인주민 연도별 변동 추이



출처: 행안부, 2011년

- 외국인근로자는 43.7%인 55만2,946명,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6.7%인 21만1,458명, 외국인주민자녀는 11.9%인 15만1,154명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이 68.9%,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8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자는 8.8%인 11만1,110명으로 나타남.

<표 9> 유형별 현황



출처: 행안부, 2011

-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이 55.1%(696,861명)로 가장 많고 동남아 22%, 미국 5.2%, 남부아시아 4%, 일본 2.8% 순.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국적별 분포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국 57.3%, 동남아 29.5%, 일본 5.1% 순으로 집계되었음 중국(한국계 중국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국적이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됨.
- 국제결혼의 현저한 증가세는 국제결혼 대상 국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1990년대 초 만해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 대상은 주로 미국, 일본남성이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역시 미국, 일본여성이 대다수였음.
-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는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성과의 결혼이 두드러지게 증가함. 1998년 개정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중국(비-한국계), 필리핀, 베트남, 태국출신으로 전환 됨. 최근에는 방문취업제의 실시(2007년 이후), 한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에 대한 일부국가의 규제 등으로 인해 국제결혼 대상 국가의 비중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김이선 외, 2006).

<표 10>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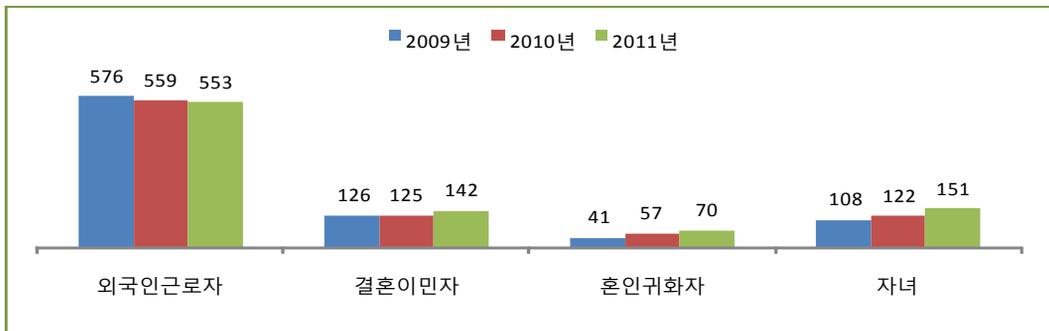
'10년	중국(60.9%)	동남아(28.5%)	일본(2.9%)	미국(0.9%)	러시아(0.6%)
'11년	중국(57.3%)	동남아(29.5%)	일본(5.1%)	미국(1.1%)	러시아(0.7%)

출처: 행안부, 2011년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주민의 79.3%인 1,002,742명으로 '10년 대비 8.9% 증가함.
- 외국인근로자는 552,946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3.7%으로 ' 10년(558,538명) 대비 5,592명 감소함.
- 결혼이민자는 141,65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2%로 ' 10년(125,087명) 대비 16,567명 증가(13.3%)함.
- 외국인주민 자녀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 (151,154명)로 '10년 대비 23.9% 증가함.
- 미취학아동(만6세 이하)은 93,537명(61.9%), 초등학교(만7세 이상 ~ 12세 이하)은 37,590명(24.9%)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86.8%를 차지함.

<표 11> '09~'11년 유형별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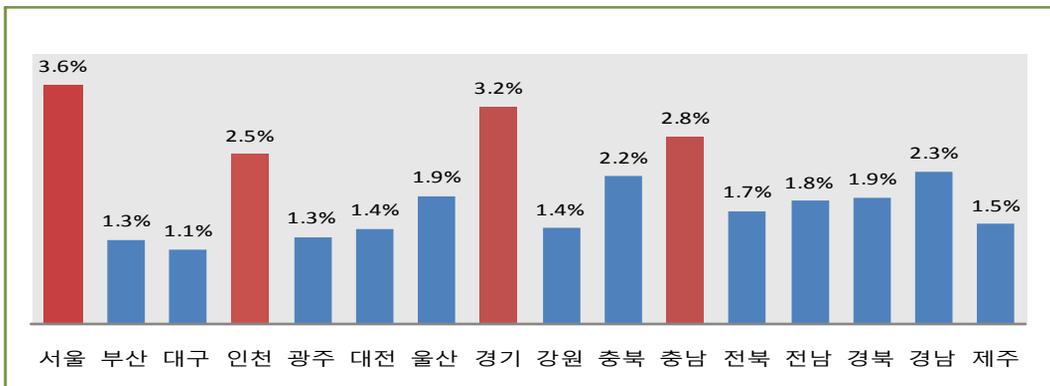
단위 : 천명



출처: 행안부, 2011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4.5%인 81만6,235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 30.1%(380,606명), 서울 29%, 경남 5.9%, 인천 5.5% 순임.
- 외국인근로자는 경기 36.8%(203,736명), 서울 26.2%(144,676명), 경남 7.3%(40,192명), 인천 5.8%(32,100명), 충남 4.7%(26,091명)순으로 공단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68.8% 집중되어 있음.
- 결혼이민·귀화자는 경기 27.7%(58,509명), 서울 23.2%(49,024명), 인천 6%(12,583명), 경남 5.9%(12,465명), 충남4.9%(10,254명) 순으로 결혼이민자의 수도권 집중도는 외국인근로자 보다 낮은 편임.
- 외국인주민 자녀는 경기 24.8%(37,519명), 서울 15.9%(24,084명), 경남 7.3%(10,996명), 전남 6.5%(9,764명), 경북 6.1%(9,246명)순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6.6%(70,471명)임.
- 주민등록인구(50,515,666명) 대비 거주비율 2.5%로 230개 시군구(제주도 행정시 포함)에 평균 5,500여명이 거주함.
- 서울, 경기, 충남,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2.5% 상회함.

<표 12> 외국인 주민 시도별 거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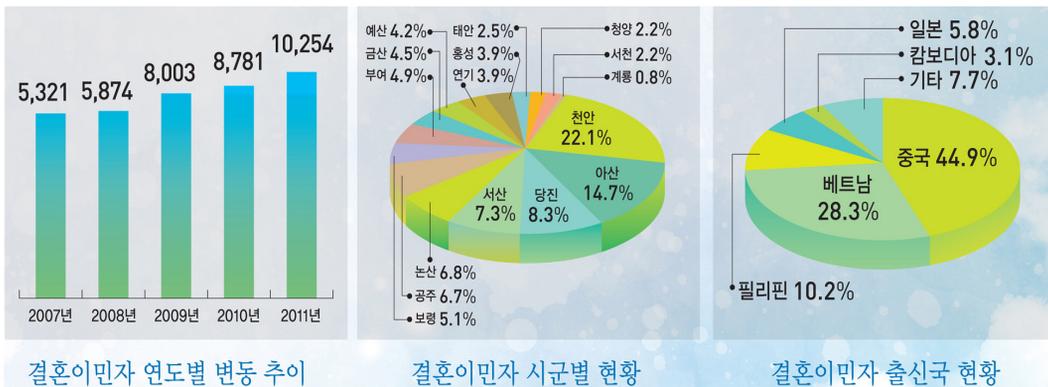


출처: 행안부, 2011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 현황

- 충남의 외국계 주민 수는 57,869명으로 전체 충남 인구 2,075,514명 대비 2.8%를 차지하여 시도별 인구대비 전국 4위의 순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노동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도시와 농촌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국제결혼이 맞물려 나타난 인구현상임.
- 충남의 결혼이민자는 10,254명으로 전년 8,781명 대비 16.8% 증가했으며 시·군별로는 천안 (2,266명), 아산(1,511명), 당진(852명), 서산(751명), 논산 (693명), 공주(683명)순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결혼이민자는 2007년 5,321명에서 2011년 10,254명으로 변화하여 불과 4년 사이에 두 배 가까운 급속한 증가를 나타냄.
- 출신국 별로는 중국(조선족포함) 4,610명(44.9%), 베트남 2,904명(28.3%), 필리핀 1,044명(10.2%), 일본 599명(5.8%), 캄보디아(3.1%) 순임.

<표13> 충남도 다문화가족 추이와 현황



출처: 충남도 2011 회의자료

- 충남 외국계주민 조사에 의하면 외국계주민의 분포는 천안시 557,673명 (2.9%), 아산시 265,191명(4.4%), 서산시 160,468명(2.3%)순으로 공업단지

를 중심으로 순위를 차지함. 한편 가장 낮은 인구수를 나타내는 곳은 계룡시(43,088명, 0.7%)로서 16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

<표 14> 충남 외국계주민 조사 총괄표 총계

구분	주민등록인구 (‘11.1.1)(A)	비율 (B/A)	총계(B) (=C+D+E)			외국계 주민세대수
			계	남	여	
충남	2,075,514	2.8%	57,869	32,072	25,797	10,113
천안시	557,673	2.9%	15,994	9,027	6,967	2,502
공주시	124,930	2.7%	3,323	1,488	1,835	709
보령시	107,346	2.1%	2,202	1,270	932	452
아산시	265,191	4.4%	11,585	7,072	4,513	1,331
서산시	160,468	2.3%	3,652	1,892	1,760	689
논산시	127,507	3.0%	3,835	1,815	2,020	559
계룡시	43,088	0.7%	309	128	181	85
금산군	56,555	3.1%	1,736	748	988	477
연기군	81,871	2.7%	2,228	1,379	849	398
부여군	75,029	2.0%	1,503	637	866	474
서천군	60,085	1.9%	1,125	629	496	293
청양군	32,541	2.2%	730	315	415	225
홍성군	88,078	2.4%	2,100	1,106	994	347
예산군	87,002	2.1%	1,789	989	800	454
태안군	63,247	1.7%	1,045	559	486	272
당진군	144,903	3.3%	4,713	3,018	1,695	846

출처: 행안부, 2011

-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총 9,119명(남 4620, 여 4499명)으로 지난해 6,953명에 비해 2,166명이 증가함.
- 충남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 분포 중, 0세~ 6세는 5,911명, 7세~ 12세는 2,115명, 13세~18세 미만의 자녀는 1,093명으로 취학 전 연령이 64.8%를 차지함.

- 충남거주 외국인자녀의 부모 출신국 별로 보면 중국계 자녀가 3,56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베트남(2,686명), 필리핀(1,217명), 일본(955명)순으로 나타남.

<표 15>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 총계

구분	합계		
	계	남	여
충청남도	9,119	4,620	4,499
만 0세	997	533	464
만 1세	1,181	607	574
만 2세	1,069	530	539
만 3세	966	482	484
만 4세	677	349	328
만 5세	550	274	276
만 6세	471	231	240
만 7세	381	183	198
만 8세	346	162	184
만 9세	344	186	158
만 10세	386	190	196
만 11세	341	174	167
만 12세	317	148	169
만 13세	302	156	146
만 14세	231	130	101
만 15세	157	79	78
만 16세	160	82	78
만 17세	112	54	58
만 18세	131	70	61

출처: 행안부, 2011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정책 및 사업 현황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국비 또는 지방비를 재원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설치 됨.

<표 16>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행계획 과제 수행 예산

영역	중점과제 20개 (세부과제 61개)	'11년 예산* (백만원)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2,38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198
2.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264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416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940
3.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23,866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3,072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665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4,770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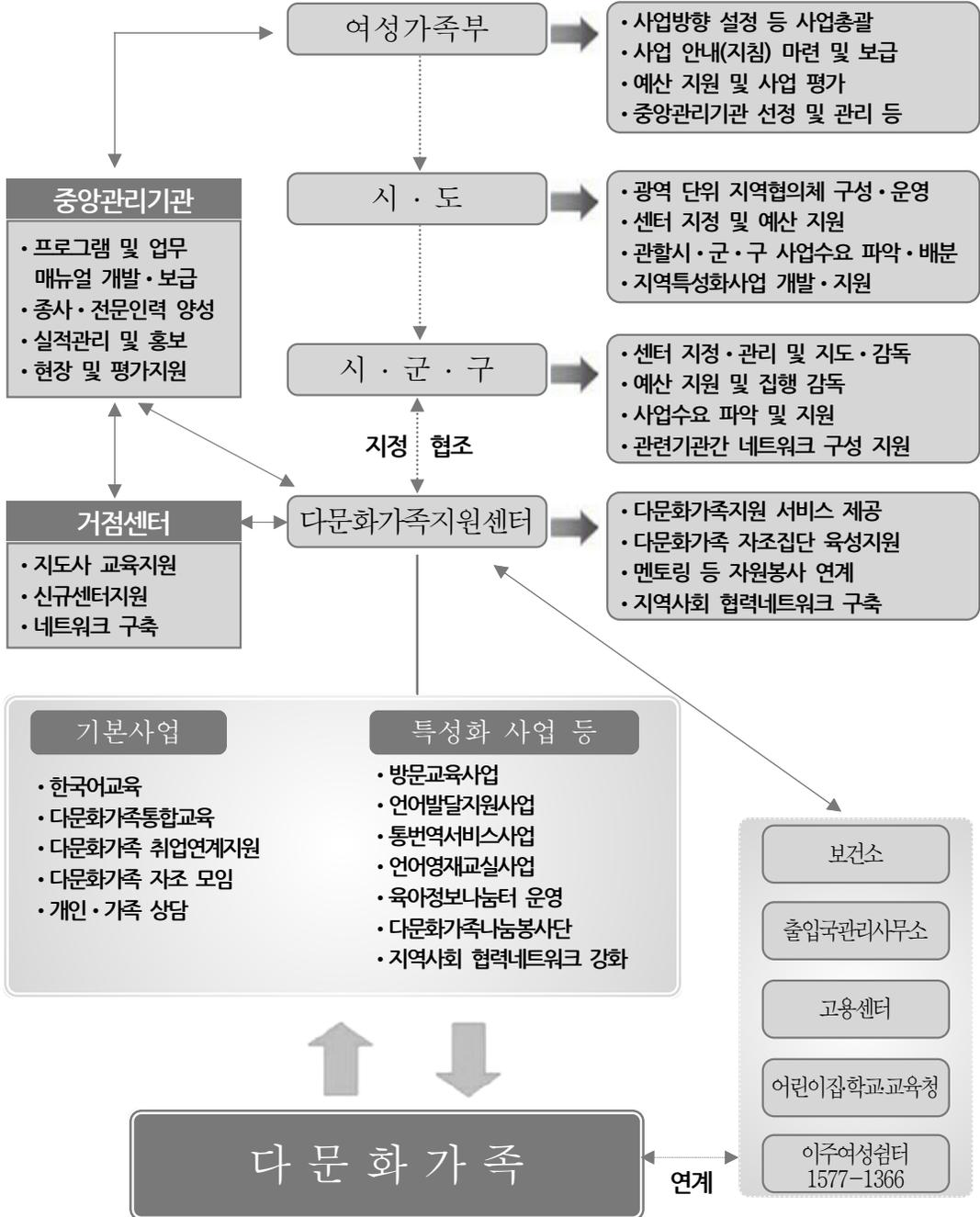
영역	중점과제 20개 (세부과제 61개)	'11년 예산* (백만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0,202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5,868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7,972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761
5. 다문화에 대한 사회 적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3,802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1,040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94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634
총계		88,939

출처: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예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 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국무총리실의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표 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201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

2.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1) 충남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가.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급속한 다문화사회로 진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과 사회적 인식 취약
- 『다문화담당』 신설로 종합적·체계적인 업무추진 여건 마련

나. 목표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기적응 지원으로 사회통합 도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다.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 다양한 가치·문화를 존중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
- 유관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입체적인 지원

2) 충남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15개 센터
 - 한국어교육(2,847명), 가족통합교육(4,751명), 취·창업교육(1,000명), 자조모임 및 상담(7,834명) 등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 15개 센터 / 1,198가정
 - 한글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 등 방문서비스 제공

- 다문화어울림 사업 추진 : 16개 시·군
 -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41가족 / 123명), 한국문화 체험(1,424명), 자격증 취득 지원(529명), 요리교실 운영(706명) 등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통·번역사 18명
 -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통역(4,586건)·번역(696건), 교육·행사 등(3,101건).

나.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 교실 운영(8개소 이중언어 강사 9명)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엄마나라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습득 지원(4개반 / 379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2센터, 지도사 15명)
 - 언어발달이 부진한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진단·평가와 교육(387명 / 4,531회)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5세이하 어린이집 이용 1,529명)

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권익증진

-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매월 셋째주 토요일) : 8회 / 102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회 방문, 법률상담 등 서비스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1개소 / 41명(연인원)
 - 긴급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의료·법률 등 지원

-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4회 / 160명
 - 다문화사회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사례발표 등 사전 교육 실시
- 국제결혼 중개업소 현장 지도·단속 강화(82개소, 분기별)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결혼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등 중개업자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

라.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 및 다문화 환경 조성

- 결혼이주여성 리더 육성 : 결혼이민자 30명
 - 생활이 안정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리더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 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 역량강화 : 100명
 -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종사자들에게 다문화이해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다국어 포털 홈페이지 운영(www.dawoolim.net)
 - 한국문화와 지원정책 안내 등 정보 제공(7개국 언어)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결혼이민자 30명)
 - 각급 학교, 유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주요 민원서류 다언어 번역 배포(7개국어 43종)
 - 혼인·출생신고서, 예방접종 예진표, 귀화허가 신청서 등

3)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의 특징

- 충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

화 가족에 대한 조기적응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실시하고 있음.

-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권익증진, 결혼이민자 사회 참여 확대 및 다문화 환경 조성의 4개 중점 영역에서 26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민원서류의 다국적 번역사업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지원이 확대 됨.

제 4 장

충남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심층 분석

제1절 조사연구 방법 43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분석 결과 48

4장 충남 이주여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심층 분석

제1절 조사연구 방법

1. 심층면접 대상과 조사 방법

- 본 연구는 충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의 지역사회활동을 조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다문화협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의 현실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음.
- 심층면접이라는 질적연구 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정량화된 조사방식으로 는 지역사회 참여에 임하는 이주여성들의 환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지원기관들이 가진 지역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임.

1) 이주여성 집단

- 조사대상 선정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주여성 중 한국거주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정함. 이유는 한국어 소통능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 이는 지역사회 참여시 선택의 요인과 참여시의 어려움 등 지역사회 참여에 임하는 개인의 의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임.

- 조사 대상자 이주여성들은 관련기관이나 실무자로 부터 추천을 받거나 지역통신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소지자, 그 외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시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주여성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형식으로 모집하여 실시함.
- 이주여성들의 일반현황으로는 국가, 연령, 학력, 한국 거주 년 수, 가족 관계(남편의 연령, 자녀수와 연령, 시부모 동거유무), 결혼경로 등을 파악하였음.
- 연구조사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총 20명으로 심층면접에서 한국어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음.

<표 18> 심층면접 대상 이주여성 집단의 개인적 배경

참여자	연령(남편)	출신국	거주 기간(년)	거주지	학력	자녀(세)/시부모 동거 유무	결혼경로
1	33(44)	우즈베키스탄	7	도시	고졸	2(8, 5)/무	중매결혼
2	28(35)	베트남	4	시	고졸	없음/유	중매결혼
3	32(40)	네팔	9	시	대중퇴	2(8, 2)/무	중매결혼
4	38(46)	중국	8	시	고졸	2(7, 5)/무	결혼중개업
5	26(42)	베트남	5	시	고졸	1(4)/무	연애결혼
6	34(43)	인도네시아	5	시	대졸	1(4)/무	연애결혼
7	33(40)	네팔	10	시	대중퇴	2(9, 7)/무	중매결혼
8	34(41)	필리핀	11	시	대중퇴	2(10, 4)/무	취업 후 결혼
9	38(47)	카자흐스탄	11	군	대학원	1(10)/무	연애결혼
10	38(51)	중국	16	시	고졸	2(16, 15)/무	중매결혼
11	34(43)	중국	9	군	대졸	2(8, 5)/유	중매결혼
12	31(41)	중국	10	시	대졸	2(6, 4)/유	중매결혼
13	33(54)	필리핀	5	군	대졸	2(20, 5)/무	중매결혼
14	26(41)	캄보디아	4	시	초졸	2(4, 1)/무	결혼중개업
15	27(41)	필리핀	3	시	대졸	1(2)/무	중매결혼
16	24(46)	캄보디아	4	시	고졸	2(4, 2)/무	결혼중개업

참여자	연령(남편)	출신국	거주 기간(년)	거주지	학력	자녀(세)/시부모 동거 유무	결혼경로
17	34(41)	중국	11	시	대졸	2(10, 8)/무	중매결혼
18	32(41)	캄보디아	8	시	중졸	2(10, 8)/무	결혼중개업
19	26(52)	캄보디아	5	시	초졸	1(4)/무	결혼중개업
20	32(37)	일본	3	시	고졸	1(2)/유	종교결혼

2) 실무자 집단 현황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또 다른 집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협회, 이주민센터, 총 7개소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함.
- 중앙정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지역사회의 민간 차원에 형성된 이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관의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 운용상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함.
-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사회 참여 현황이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음.

<표 19> 심층면접 대상 실무자집단의 소속기관 현황

참여자	기관유형	직책	소재지	설립년도	이용자수
A	다문화가족협회	회장	시	2010	70
B	이주민센터	센터장	천안시	2003	300
C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홍성군	2008	210
D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청양시	2011	180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서산시	2008	750
F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서천군	2008	200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연기군	2009	250

2. 심층 면접 내용

1) 이주여성 집단

- 이주여성 대상의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과 기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활동하는 내용, 참여시의 소요기간, 남편과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지지와 동참 여부, 참여 선택의 기준과 이유, 참여시에 어려운 점, 바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함.

<표 20> 이주여성 집단 대상의 심층면접 질문 내용

항목	세부질문
일반적 특성	국가, 연령, 학력, 한국 거주 년 수, 가족관계(남편의 연령, 자녀 수와 연령, 시부모 동거 유무), 결혼경로(연애결혼, 중매결혼, 결혼중개업체, 한국 취업 후 결혼, 종교)
지역사회 참여 내용	활동기간, 활동 내용, 주로 만나는 사람
가족의 지지여부	남편, 가족의 지지여부 지지나 반대의 이유, 참여 정도, 참여 이유
다문화 관련기관 참여 현황	참여 프로그램 명, 참여의 혜택
지역사회 참여의 기준	참여 선택에서 중요시 여기는 기준, 향후 하고 싶은 활동
경험 및 기대감	참여시 겪는 어려움, 향후 참여 하고 싶은 활동

2) 실무자 집단

- 실무자 대상의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센터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용 및 현황, 가족참여 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및 문제와 한계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의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파악함.

<표 21> 실무자 집단 대상의 심층면접 질문 내용

항목	세부질문
프로그램 내용	센터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
가족참여 프로그램	가족 참여프로그램의 내용과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지원 프로그램 혹은 사업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도움 유무 문제와 한계점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개별 기관이나 모임들 간 협력적인 관계구축 여부와 그에 대한 이유
활성화 방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 독려 방안

제2절 충남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분석 결과

1. 이주여성 집단 현황

1) 개인 사항과 가족 배경

- 참여자 20명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9개국으로 나타남.

<표 22> 참여 이주여성의 국적

합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20	1	2	2	5	3	4	1	1	1

- 참여 이주여성의 연령은 30대 14명, 20대 6명으로 평균나이는 31.65세였으며, 배우자 평균나이 43.7세로 12세의 연령 차이를 나타냄.

<표 23> 참여 이주여성과 배우자 연령

배우자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본인	0	6	14	0	0	0
남편	0	0	2	15	3	0

- 참여 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10명, 대학교 졸업 6명, 초등학교 졸업 2명, 대학원 이상 1명으로 나타남.

<표 24> 참여 이주여성의 학력

합계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대학원이상
20	2	1	10	0	6	1

- 조사대상 이주여성의 평균 한국거주 기간은 7.4년, 자녀수는 평균 1.5명, 자녀 평균나이는 5.3세, 시부모와 동거세대는 4가구임.

<표 25> 참여 이주여성의 자녀수와 시부모 동거인 수

합계	0명	1명	2명	3명이상
20	2	6	12	0

- 참여 이주여성의 본국에서 직업은 학생, 무직, 경리 순이었으며 남편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농업, 공무원, 기타노동직 순으로 나타남.

<표 26> 참여 이주여성 본국에서의 직업

합계	회사원	학생	강사	공장	경리	웃디자인
20	1	4	1	2	3	1
미용	상담교사	자영업	계산원	임상병리	무직	기타
1	1	1	1	1	3	0

- 참여 이주여성 남편의 직업조사결과 회사원, 자영업, 농업, 환경미화원, 기타 노동직 등으로 나타남.

<표 27> 참여 이주여성 남편의 직업

합계	회사원	환경미화원	하수종말처리업	자동차정비업
20	8	2	1	1
자영업	용접원	운전사	결혼중매업	농업
3	1	1	1	2

- 참여 이주여성의 현재 직업으로는 주부 8명, 통번역 및 강사 8명, 방문지도사 1명, 회사원 1명으로 나타남.

<표 28> 참여 이주여성의 현재 직업

합계	통번역 및 다문화강사	강사	회사원	주부	방문지도사	무직	기타
20	4	4	1	6	1	2	2

- 참여 이주여성의 결혼경로는 중매결혼 10건, 결혼중개업체 5건, 연애결혼 4건(취업 후 결혼 포함), 종교 1건으로 나타남.

<표 29> 참여 이주여성의 결혼 경로

합계	연애결혼	중매결혼	결혼중개업체	한국취업 후 결혼	종교
20	3	10	5	1	1

2) 이주여성 집단 심층면접 결과 분석

가. 참여의 유형과 소요 정도

- 참여 이주여성들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활동은 출신국 모임이 대다수였고, 지역사회참여 연수 평균은 3년 7개월임.
- 이주여성들의 지속적, 정기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에서의 공적인 영역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업무, 다문화 관련 행사, 강의, 교육, 통번역, 상담, 사회봉사, 자조모임, 상담 등이었으며 사적인 영역은 출신국가별 모임, 친구모임 등으로 나타남.

(질문: 이주여성들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내용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통번역, 노동자재소자 상담 우즈벡 친구들 모임 등
- 참여자 2.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통번역 상담, 레지오활동, 베트남친구들 모임
- 참여자 3.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통번역, 다문화 관련 문화행사에는 부정기적참여, 바빠서 정기적 모임활동은 못함.
- 참여자 4.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다문화강의, 통번역, 교도소상담
- 참여자 5.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베트남여성회에서 언어문제이나 한국문화를 어려워하는 베트남의 이주여성에 도움. 한-베 무료 통. 번역 카페, B B k o r e a 무료 전화 봉사 통역, 학교나 성인대상 다문화교육
- 참여자 6.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명예홍보대사, 통번역, 친구모임
- 참여자 7. 꿈이평화사업단 활동, 다문화 교육, 통번역, 교도소상담, Happy festival
- 참여자 8. 레지오 모임, 사랑회 모임
- 참여자 9. 교회에서 11동안 활동했음
- 참여자 10. 단체모임, 영농후계자, 생활개선회, 예비군, 다문화가정협회(지회장)
- 참여자 11. 방문지도사, 교육청(다문화이해교육강좌), 대학동창모임, 이주여성자조모임
- 참여자 12. 한글교육, 중국인 모임, 이주여성 자조모임
- 참여자 13. 필리핀모임, 이주여성 자조모임
- 참여자 14.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회원활동, 캄보디아 자조모임
- 참여자 15. 자조모임
- 참여자 16. 충남다문화협회 보령사회모임, 캄보디아 자조모임
- 참여자 17. 자조모임.
- 참여자 18. 통역,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회원활동, 나라음식 만들기, 캄보디아 자조모임(한 달), 컴퓨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교육
- 참여자 19.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캄보디아 자조모임, 복지관 다문화교육 모임
- 참여자 20. 교회에서 한 달에 1~2번 만나서 전도활동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상근직의 경우 주 5회부터 한 달에 한 두 번의 부정기적인 모임까지 참여자들이 활동하는 모임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질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떠한가?)

- 참여자 1. 사회적기업 상근직, 기타 문화행사 1달 1회
- 참여자 2. 사회적기업 상근직, 레지오:주1회, 베트남 모임: 1달1회
- 참여자 3. 사회적기업 상근직, 기타 행사
- 참여자 4. 사회적기업 상근직, 주2회 달 10회
- 참여자 5. 사회적기업 상근직, 기타 행사 한달에 한두번
- 참여자 6. 사회적기업 상근직, 문화행사 한 달에 1번
- 참여자 7. 사회적기업 상근직, 문화행사 한 달에 1번
- 참여자 8. 사회적기업 상근직, 레지오 주1회 사랑회 모임 두 달 1번
- 참여자 9. 한 달에 3번
- 참여자 10. 한 달에 1~2번
- 참여자 11. 한 달에 1~2번
- 참여자 12. 한 달에 1~2번
- 참여자 13. 주1~2번
- 참여자 14. 한 달 1번~2번, 농사가 바쁜 시기에는 교육이나 활동을 하지 못함
- 참여자 15. 한 달에 1~2번
- 참여자 16. 월 4번, 가끔씩
- 참여자 17. 한 달 1~2번
- 참여자 18. 일주일에1~2번, 여름에는 활동하지 못함(농사일로 바빠서)
- 참여자 19. 한 달 4번
- 참여자 20. 한 달 1~2번

나. 이주여성이 교섭하는 대상

- 이주여성이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나는 사람은 이주여성, 같은 국가 출신, 업무 관련한 사람들(원주민과 외국인, 공무원들), 외국인노동자, 학부모, 종교인 등으로 나타남.

(질문: 모임을 통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참여자 1.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사,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을 만나고 개인적 모임에선 주로 우즈벡 친구들과 만남
- 참여자 2. 업무관련해서 경찰, 사회복지사, 이주노동자, 일반시민 등을 만나고, 레지오 활동에서는 필리핀 친구들과 수녀님을, 사적인 모임에서는 베트남 친구들을 만남
- 참여자 3.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주민과 이주여성들
- 참여자 4.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또는 지역 복지기관인들.
- 참여자 5.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 사회복지기관들, 학생, 공무원 등
- 참여자 6.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지역주민
- 참여자 7. 업무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기관인,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를 만남
- 참여자 8. 직장동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국제 자조모임 사람들.
- 참여자 9. 주부, 학생, 직장인들
- 참여자 10. 단체 회장님, 의원님, 후계자회원, 학부모.
- 참여자 11. 대학동창, 이주여성.
- 참여자 12. 다문화가정, 남편 친구들
- 참여자 13. 필리핀 가정
- 참여자 14. 중국 언니들, 캄보디아 여성들
- 참여자 15. 다문화 모임, 이주여성,
- 참여자 16. 캄보디아 사람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
- 참여자 17. 중국인, 각 나라사람들
- 참여자 18. 친구, 이주여성들.
- 참여자 19. 같은 나라 출신 여성들이나 친구.
- 참여자 20. 일본 언니들 위주로 만남.

다. 참여의 이유와 효과

-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문화인권 인식개선을 위해, 친교, 자기성장, 지역발전, 타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 봉사로 인한 개인적 만족감습득, 적응에 도움, 경제활동에 도움 등을 들었음.

(질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자 1.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인권을 알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 참여자 2. 개인의 성장과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 참여자 3. 개인 성장과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 참여자 4. 자기 성장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 참여자 5.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이주민들이 빨리 한국사회 적응할 수 있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해
- 참여자 6.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
- 참여자 7.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경제 분야와 자녀 육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 참여자 8. 서로 간 친교 및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소통 때문에
- 참여자 9.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 참여자 10. 개선과 자비로움을 나누기 위해
- 참여자 11. 좋은 정보를 얻고 싶어
- 참여자 12. 사람들과의 모임이 좋아서
- 참여자 13. 필리핀 이주여성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 줌
- 참여자 14. 대부분 아이와 지내야 하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 외로워서
- 참여자 15.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서
- 참여자 16. 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받기위해
- 참여자 17. 모임이나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해
- 참여자 18. 다양한 정보를 주는 교육이 필요해서
- 참여자 19. 교육, 컴퓨터, 강사교육, 한글교육을 받기 위해
- 참여자 20. 통역사가 되고 싶어서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본인이 느끼는 장점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도와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한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며 한국어 실력향상, 새로운 정보를 통해 한국 적응, 친목, 적응, 즐거움 등을 들었음.
-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이타적인 자기 만족감을 나타낸 여성들의 경우 이주여성으로서 정체성이 매우 뚜렷하여 자신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과 더욱 발전하기 위해 현실에서 참고 견디어 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보임.

(질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얻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음 함께 어려운 점이 나누면서 해결 한 것이 좋음, 상담 등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돕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키움
- 참여자 2. 공적인 영역에서 참여를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타인을 돕는 보람과 사교성을 기를 수 있음.
- 참여자 3.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이주여성들과 서로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개인 성장이 됨.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통번역 활동과 외국인 재소자의 상담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낌. 자녀를 키우면서 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노동자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나로 인해 누군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려워도 봉사활동은 지속함.
- 참여자 4. 참여하고 남을 도움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자신감 키우는데 도움이 됨. 같은 외국인처지에서 돕는다는 것은 매우 큰 보람이 있으나 주말이나 밤시간에 도와주어야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함
- 참여자 5. 사회적 기업에서의 활동자체가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성장과 함께 다른 사람과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
- 참여자 6. 다문화강사와 통번역 활동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가족의 지지를 받게 됨
- 참여자 7. 한국어 향상과 한국사회 대해 알게 됐고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느낌
- 참여자 8. 한국인들과 언어소통과 문화적응 및 교육에 도움이 됨
- 참여자 9. 정보를 나누는 것
- 참여자 10. 나의 능력을 개발함
- 참여자 11. 정보를 많이 얻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
- 참여자 12.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참여자 13.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줌
- 참여자 14.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적응을 돕고 자신을 성장시킴
- 참여자 15. 금전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고 활동이 다양해짐
- 참여자 16.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됨
- 참여자 17. 친목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음
- 참여자 18. 교육을 통해 한국에서 해야 할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음
- 참여자 19. 나의 생각이 발전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함, 친구 만나는 즐거움.
- 참여자 20. 한국문화를 배우고 지식과 정보를 얻음

라. 참여에서의 어려운 점과 선택의 기준

- 지역사회 참여에서 어려운 점은 소통문제, 전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 자녀양육이 우선이라 시간내기가 어려움, 교육이나 다른 사회참여 활동을 하려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나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주변의 차별적 인식, 공무원들과 대면에서의 어려움(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통역 봉사활동 시, 외국인 재소자 상담 시에)등을 들음.
- 밤 시간이나 주말에 통역이 필요한 1366이주여성 긴급전화와 관련한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자녀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분담해 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봉사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을 가진 경우만 활동이 가능함.
- 육아기에 있는 다수의 이주여성들은 센터나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린자녀를 돌봐 줄 만한 곳이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함.
- 일부 이주여성들은 다문화 관련 업무에 있어 공무원들과의 관계형성을 어려워 함.

(질문: 지역사회 활동 참여시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참여자 1. 사업 활동 시 전문적 언어표현이 어려움
참여자 2. 번역 활동에서 법률 용어와 같은 전문적 언어표현이 어려움
참여자 3. 자녀 육아문제로 활동이 어려움(자녀가 어렸을 때 돌봐야 하고 어느 정도 자라도 아프다거나 할 때가 있어 사회참여 활동이 어려움)
참여자 4. 주말 또는 밤늦게 1366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 등 도움요청이 있을 시에 아이엄마로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서 힘들.
참여자 5. 공무원분과 아직 어울리지 못했음. 이주민이라 친정이 없어서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없음

- 참여자 6. 이주여성이 한국여성과 같이 참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회인식은 아직까지 받아들이기엔 좀 힘들다고 느낌
- 참여자 7. 회의와 토론에서 정부에 활동한 공무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음. 봉사활동 등이 나 다른 행사에 참여시간 내기 어려움
- 참여자 8. 통역을 하다 보니 전문적인 용어와 한국의 속담 등이 어려움
- 참여자 9. 시간내기의 어려움, 자녀 공부시키기 위한 모임에서 한국교과서 내의 용어 등이 어렵지만 활동 자체에 대해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없음
- 참여자 10. 소통의 어려움
- 참여자 11. 시간 내기가 어려움
- 참여자 12. 시간이 잘 안남(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 참여자 13. 한국사회 교육 자격 미취득상태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못하는 어려움
- 참여자 14. 언어대화가 잘 안되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어딜가나 외로움을 느낌.
- 참여자 15. 대화가 안되고 다른 눈초리가 조금 있다(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 참여자 16. 아기들 키우느라 활동하려 나가고 싶어도 쉽게 나가질 못하는 어려움
- 참여자 17. 차별대우를 받음.
- 참여자 18. 언어의 어려움
- 참여자 19. 이질적인 한국 문화와 언어
- 참여자 20. 일본인 외 다른 나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움

-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시에 선택하는 기준은 교육의 기회와 자신의 성장 가능성으로 8명<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5>, <참여자10>, <참여자12>, <참여자15>, <참여자18>, <참여자19>이 답했고, 친교를 위해서 3명<참여자9>, <참여자11>, <참여자20>이 답했고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활동인가는 3명<참여자3>, <참여자6>, <참여자8>, 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2명<참여자14>, <참여자16>, 모임과 토론중심인가<참여자7>, 대학 진학의 가능성과 연계하는가<참여자13>와 일자리 연계 가능성<참여자17>으로 각각 1명씩 답했음.

(질문: 지역사회 활동 참여시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중요함. 내 꿈을 이루어지게 하게 위해
- 참여자 2.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

- 참여자 3. 자기성장, 한국문화, 사회를 경험하는 것
- 참여자 4.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연관성
- 참여자 5. 한국인과 이주민을 다 함께 더불어 세상을 만드는가
- 참여자 6. 다문화강사활동에 관련되고, 서로 이해 해 주고 존중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는가
- 참여자 7. 활동 대한 모임과 토론이 중요함.
- 참여자 8.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참여자 9.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인가
- 참여자 10. 많이 배울 수 있는가 즐거움을 주는 가
- 참여자 11.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 참여자 12. 교육내용. 많이 배울 수 있는가
- 참여자 13. 평생교육원에서 이중언어 강사 교육과정 제공, 대학진학 필요성
- 참여자 14. 되도록 많이 배우고 싶음(언어포함)
- 참여자 15.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가
- 참여자 16. 두 아이의 언어가 늦어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인가, 참여에 활동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인가, 나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가
- 참여자 17. 일자리 창출, 다문화 알리기와 관련이 되는가
- 참여자 18. 교육내용이 중요한데 요리교실같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좋아함.
- 참여자 19.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 참여자 20. 서로의 소통

마. 배우자의 지지 여부와 동반 참여 내용

- 조사대상 이주여성들 중에 2명<참여 6>과 <참여자20>을 제외한 모든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의 사회활동과 지역사회 참여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사회활동을 반대한 두 여성은 시부모와 함께 동거상태 임.
- 참여자들의 지역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여부 유무와 이유나 배경은 다음과 같음.

(질문: 지역사회 활동 참여시에 가족의 지지여부는? 지지하거나 그러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자 1. 지지함.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임
참여자 2. 지지함.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참여자 3. 지지함. 다문화에 관심 많아서.
참여자 4.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서 가족들이 지지 하고 있음.
참여자 5.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빨리 적응하기 위해
참여자 6. 지지하지 않음. 한국여성들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함. 시어머니는 대체로 잘 해주려고 노력하면서도 며느리의 바깥 활동에는 부정적이며 간섭함.
참여자 7. 경제적 도움이 되므로 지지함
참여자 8. 사람들과 만나는 게 한국에 가장 적응을 잘하게 되므로 활동을 지지함.
참여자 9. 반대 하지 않음.
참여자 10. 지지함.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참여자 11. 지지함. 이주여성들 간의 이끌림도 있기 때문
참여자 12. 지지함. 한국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참여자 13. 좋은 일을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지지함
참여자 14. 적응 잘하게 도움주려고 지지하는 편임.
참여자 15.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권장하고 지지함
참여자 16. 사회에서 잘 적응하라고 지지함
참여자 17. 지지함. 맞벌이를 하고 있으므로 다른 교류를 지지함.
참여자 18. 대화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이해 지지함
참여자 19. 지지함. 외로워하기 때문에 친구사귀라고 함.
참여자 20. 반대함. 시부모와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 지역사회 활동에서 남편의 동반 참여에 대해 7명 <참여자1>, <참여자3>, <참여자8>, <참여자9>, <참여자10>, <참여자13>, <참여자17>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고, 가끔 참여한다 라는 답에는 3명<참여자5>, <참여자7>, <참여자12>가 답함.

● 조사대상자들 중 남편이 아내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문: 지역사회 활동에서 남편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모이세 워크숍
- 참여자 3.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복지관활동, 다문화페스티벌)
- 참여자 5. 봉사활동
- 참여자 7. 친구모임
- 참여자 8. 자조모임과 공동체 및 봉사활동
- 참여자 9. 교회, 집사
- 참여자 10. 부모모임, 단체활동
- 참여자 12. 다문화모임
- 참여자 13.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 참여자 17. 자조모임

● 비참여 배우자는 10명<참여자2>, <참여자4>, <참여자6>, <참여자11>, <참여자14>, <참여자15>, <참여자16>, <참여자18>, <참여자19>, <참여자20>이 대답하였음. 비참여의 이유로 대다수가 남편의 경제활동 등 생활고로 인해 바쁘다고 함. <참여자18>은 장애인 남편으로 거동이 어려움을 불참여유로 들었음.

(질문: 지역사회 활동에서 남편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참여자 2. 아내의 바깥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주의주고 경계하므로 동반 참여가 어려움
- 참여자 4. 아내가 역량을 키우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는 지지하지만 남편은 다문화 가족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함
- 참여자 6. 경제활동으로 바쁨
- 참여자 11. 지역행사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원되는 것을 싫어함.
- 참여자 14. 아내에게 밖으로 다니면서 많이 배우라고 하지만 살림하는 시간이 방해 되면 안되고,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
- 참여자 15. 아내는 대학을 졸업했으나 환경미화원 남편은 스스로 낮은 직업이라 여기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림

- 참여자 18. 남편이 장애인이므로 거동이 어려우며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함
특히 주변사람들이 아내의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애인 남편이라며 안쓰러워하는 말 듣는 것을 매우 꺼려함.
- 참여자 19. 남편이 국제결혼중개업자이므로 사람들 앞에 직업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임에 나가려고 하지 않음.
- 참여자 20. 아내의 바깥활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편도 참여하지 않음.

사. 센터와 단체 참여 경험과 좋은 점

- 한국어와 문화에 서툰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와 관련 기관을 통해 한국살이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으므로 기관들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활동으로 이어감.
- 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단체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조직화 된 모임에서 활동하는 여성과 사적차원에서 참여하는 이주여성 간에 참여 종류에서 차이를 보임.
- 비교적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단체에 참여한 지역사회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천안상명대학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 교육, 천안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의료 서비스 봉사, 모이세 행사(바자회, 소풍, 여름캠프), 다문화강사양성과정교육(모이세), 다문화강사교육(다문화교육진흥원)3.8여성대회,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 참여자 2. 천안시사회복지페스티벌, 모이세 행사(바자회, 소풍, 여름캠프), 다문화강사양

	성과정교육(모이세), 통역사교육(YWCA), 다문화강사교육(다문화교육진흥원), 3.8 여성대회,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3.	모이세 행사, 다문화양성교육과정, 다문화강사, 통역사교육,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4.	다문화강사 역량강화, 통역사교육, 3.8여성대회, 이주여성 및 아동폭력 캠페인, 해피 페스티벌, 문화 마당.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5.	세미나, 워크숍, 다문화교육, 통번역교육, 강사 역량 교육, 봉사활동,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등
참여자 6.	다문화강사양성과정교육(모이세), 다문화강사교육(다문화교육진흥원), 통번역 모임, 한국어 공부, 문화행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7.	3-8여성 대회, 천안 Happy festival, 다문화 토론회의, 이주 인권 연대회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강사양성과정교육(모이세), 문화행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8.	한글교실 및 요리 프로그램,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9.	결혼이주여성 리더육성 교육, 엄마 공부방
참여자 10.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11.	합창, 상담사교육
참여자 12.	한글공부, 친정방문
참여자 13.	한글교육, 요리, 컴퓨터
참여자 14.	센터 1년 행사만 참여(연말), 다문화이해교육강사교육
참여자 15.	한국어, 사회 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16.	한글교육
참여자 17.	없음, 직장에 다니므로 지역행사나 자조모임이외에는 교육을 받기어려움
참여자 18.	컴퓨터, 만들기, 농사(고추, 배추)8년간 교육받음
참여자 19.	컴퓨터, 한글교육, 요리교실
참여자 20.	한글교육, 요리강좌. 컴퓨터 교육.

- 이주여성들이 센터나 단체를 활용하는데 있어 느끼는 좋은 점에 대해 대체로 같은 출신 국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을 만나는 친교에 만족이 컸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어 습득과 지식을 넓혀 한국 적응을 돕고 유용한 정보공유는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에 도움이 됨.
- 교육이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참여활동을 통해 방문지도

사, 육아지원 등 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된 참여자들은 활동자체가 수혜라고 인식하여 활동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질문: 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단체를 활용하여 갖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다양한 교육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분을 쌓고 경험 공유함.
한국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시작한 것이 다문화강사교육이었고 이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형성하였음
- 참여자 2.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경험도 이야기 나눔.
- 참여자 3. 한국어도 늘고 서로 이해하고 정보들 알 수 있음.
- 참여자 4. 이주여성들과 한국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음.
- 참여자 5. 지식을 쌓고 나 혼자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음.
- 참여자 6.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됨
- 참여자 7. 이주민들이 직접 활동 할 수 있고 경험이 됨.
- 참여자 8.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서 좋고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됨.
- 참여자 9.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
- 참여자 10. 공감대형성에 좋으며 친구를 사귀기
- 참여자 11.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 참여자 12. 우리의 습터, 공감 할 수 있어서 좋음
- 참여자 13. 한글교육, 친분도모
- 참여자 14. 집에서 가까운 곳 농협이나 기술센터 복지관등에서 교육이 있으면 항상 참여하는데 사람을 알게 되어 좋음. 활동을 통해 집에 한글 방문지도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개월간 매달 5천원만 내고 집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됨.
- 참여자 15. 여러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기, 논산단체 센터에서 한국말 가르침
- 참여자 16. 배우는 것이 좋아해 많이 다님. 활동을 통해 방문지도사 제도를 알게되어 활용하고 있음. 3명의 가정 방문교사로 한국어실력이 늘게 됨.
- 참여자 17. 서로 한국에서 필요한 정보공유 특히 다문화가정에 유익한 다양한 지원정보를 얻을수 있음
- 참여자 18. 한국에서 살기에 필요한 지식 정보습득과 교육을 통해 배우기
- 참여자 19.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알게 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 참여자 20. 한국에서 살기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육아정보 요리 교실 등으로 생활에 도움이 됨.

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의 적절성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많다는 답과 그렇지 않다는 극단적인 답을 하였는데 이는 수혜자로서 경험에 따라 다르게 대답한 것으로 추론됨.

(질문: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정부와 기관의 지원은 적절한가?)

참여자 1.	적당하고 생각함.
참여자 2.	적당하고 생각하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지원되는 문제.
참여자 3.	잘 모르겠음
참여자 4.	지원이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욱 더 많길 바람
참여자 5.	적당함
참여자 6.	안 그런 편
참여자 7.	100%에 90%정도임
참여자 8.	그러함
참여자 9.	아님, 지역다문화홍보대사로 뽑혔으나 적절한 지원이나 활용이 없음
참여자 10.	아님, 다문화사업은 많으나 다문화가정에게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여자 11.	80%정도라고 봄
참여자 12.	그렇다고 봄
참여자 13.	아님. 이중 중복 지원이 많음. 한국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자 대학등록금 대주길 바람(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참여자 14.	조금임, 정보가 부족하여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름)
참여자 15.	매우 그런 편임. 다른 나라에는 이주여성에게 정부에서 지원이 없음
참여자 16.	많이 하고 있는 편임. 다른 나라에는 결혼이민자에게 혜택이 없어 한국의 지원정책은 고맙게 느껴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참여자 17.	아님.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참여자 18.	그러함
참여자 19.	아님(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음)
참여자 20.	매우 그렇다고 봄

자. 향후 참여 시의 활동 내용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통번역활동, 다문화강사,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직시하거나, 일자리를 갖는데 기초가 되거나,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거나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활동임.
- 지역사회 참여에서 두드러진 내용은 교육활동을 통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활동은 무엇인가?)

- 참여자 1. 통번역 활동, 안정적인 다문화 강사 활동.
- 참여자 2. 통번역 활동, 다문화 강사 활동을 위한 강사교육.
- 참여자 3. 다양한 교육,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싶고 한국어 교육,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교육, 컴퓨터, 한식요리 교육.
- 참여자 4. 통번역, 다문화강의.
- 참여자 5. 통번역, 다문화역량강화교육, 도구 만들기
- 참여자 6. 리더십교육이나 다문화 역량강화교육
- 참여자 7. 한국어 교육, 통역, 번역,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 인권에 대해 활동 하고 싶음.
- 참여자 8.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국제 봉사클럽이 개설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음.
- 참여자 9. 일회성으로 가족이 동반되는 지역행사는 거절함. 자신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리더육성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 하고 싶음. 특히 2009년 충남지역의 다문화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으나 그에 적당한 활동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 본인은 이주여성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
- 참여자 10. 모든 활동에 다 참가하고 싶음.
- 참여자 11. 이주여성 리더교육
- 참여자 12. 우리 다문화 가정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줄 수 있는 모든 활동
- 참여자 13. 학교 교사 활동
- 참여자 14. 모든 활동
- 참여자 15. 직업을 갖기 위한 활동
- 참여자 16. 모든 교육
- 참여자 17. 일자리교육, 체험학습
- 참여자 18. 컴퓨터교육, 한글교육, 일자리교육

참여자 19. 자조모임, 부모교육

참여자 20. 어렵고 잘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봉사활동 교육

2. 실무자 집단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면접 배경과 내용 구성

- 정부지원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과 민간기관인 이주민센터와 다문화가정협회 각 1개소의 담당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참여의 현황과 내용을 파악함.
- 실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현황과 내용 및 활성화 방안을 다섯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파악하였음.
-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다섯 가지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용,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현황,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활성화 방안 및 제언으로 구성되었음.

2) 심층면접 결과

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

- 각 기관이나 센터의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여성가족부의 사업내용으로 이루어져 각 지역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내용으로 운용됨.

- 민간차원의 이주민 센터와 다문화가정협회에서는 각 지역 현실과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여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문: 귀하의 센터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 모임이나 프로그램 당 참여 인원은 대략 어떠한가?)

<p>참여자 A</p>	<p>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방학운영) (폴루. 컴퓨터. 예절교육, 풍선아트, 영어, 중국어)(10명), 보령 시민을 위한 중국어, 영어 무료 교실 개강 (수요일: 영어 6명, 금요일: 중국어, 9명)노인복지관 자원봉사(월 1회), 다문화가정 봉사(9명), 중국인을 위한 한글교육 (8명) 캄보디아 베트남 2가정 위탁 후원. 나라별 자조모임 (중국18명 캄보디아 9명, 필리핀 6명, 베트남 5명) 이중언어 강사교육 (교육청주최 5명) 보령 참여넷(6명)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유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면 참석률이 높은 편임.</p>
<p>참여자 B</p>	<p>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10명), 문화마당(연 6회, 매회 30명), 이주민이 만들어 가는 체험 여행(연 4회, 매회 10명). 이주민 대상교육 노동 교육(연 6회, 매회 15명~20명), 오토바이 운전면허 교육(연 2회 30명), 법률교육(연 4회 100명), 경제교육, 미디어 교육 15명,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연 20명), 통·번역 교육. 한국어 교실(초·중·고급 과정, 30명), 한국인 대상의 열린시민교육(연 6회, 매회 30명), 이주워크숍(30명) 다문화교육(연100회 이상 매회 35~40명) 지역주민센터 영어교육(매주 1회, 15명), 여성단체 연대 활동,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동, 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 다문화기관 연합회 활동, 이주민권연대 활동, 한국/필리핀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사랑회’ 약 30가정, 필리핀공동체 ‘UFILCOM E’ (200명), 방글라데시 공동체, ‘BMC’(20명), 이주민 가톨릭공동체 ‘IMCC’(20명), 이주여성 레지오팀(20명)이 활동함.</p>
<p>참여자 C</p>	<p>한국어: 1~3단계(50명), 글쓰기 단계(35명), 4~5단계(30명), 한국문화체험(106명), 통·번역지원(55명), 읍·면 한국어강사 파견(36명). 송년행사(200명), 자조모임(65명), 남편자조모임(20명), 다문화합창단(35명), 예비학부모 교육(18명), 다문화자녀 의료캠프(35명), 출산용품 지원(39명), 자녀발달 단계 지원(4명), 자녀 정서 지원(38명), 육아정보나눔터(70명),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한 엄마공부방(16명).</p>

	<p>취·창업지원: 운전면허 취득(21명), 산모도우미교육(11명), 다문화강사 파견(14명), 자격 취득(48명)프로그램을 운용함.</p>
참여자 D	<p>가족현장체험(드림스타트센터, 30명), 간식 만들기(드림스타트센터, 30명), 김장담그기(농가주부모임, 10명), 베트남초청 만찬회(베트남참전유공자회, 120명),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화성농협, 10명), 다문화가정 자매결연(청양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150명).</p> <p>충남다문화어울림한마당(청양군 생활체육회, 40명), 지역문화체험, 홍보(청양고추 구기자축제, 70명), 국적별 거리퍼레이드(칠갑문화제 20명).</p> <p>지역복지체험, 홍보(청양군사회복지박람회 60명),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회(칠갑문화예술인협회), 한국문화체험(금산세계인삼엑스포), 나눔봉사단(마을회관) 활동함.</p>
참여자 E	<p>한글사랑교실, 다문화사회이해교육(452명), 사회통합프로그램(연인원 2299명), 취업지원교육(130여명)</p> <p>나라별 자조모임, 가족통합 자조모임(1200여명)</p> <p>언어발달 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p> <p>각종 동아리활동(다도동아리, 합창단, 동화구연, 부채춤 등 60여명)</p> <p>한국문화체험</p> <p>각종 자격증과정, 사회적응 프로그램(300여명), 다문화인식개선 사업(3000여명), 패밀리데이,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p> <p>육아정보나눔터 프로그램 및 사업.</p>
참여자 F	<p>다문화가정 화상상봉 및 K-pop경연대회(다문화가족들에게 본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과 화상을 통해 상봉), 한국노래 경연대회(50명).</p> <p>지역 대축제 한산모시축제(2,985명), 지역문화탐방(월명산 등반)프로그램(35명), 아우름 가족봉사단(70명) 참여 프로그램.</p>
참여자 G	<p>한국어교육 1단계. 40회(1,440명)/ 2단계 40회 (600명)/ 한국어3단계. 40회(400명)/ 한국어 4단계. 20회(150명)이며 한국어능력 시험은 중급반 65회기, 고급반 65회기(36명).</p> <p>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가족통합교육 23회(연인원 295명), 배우자·부부교육 3회 45 명(연인원), 자녀지원 15회(연인원 135명), 자녀교육지원: 학습: (28회기마다 10명), 체험학습: 2회기, 다문화가정 자녀 (10명).</p> <p>한국문화체험: 금산세계인삼엑스포(30명), 계룡세계군문화축제(51명). 스피치대회(대한적십자사 연기지구 위탁, 20명). 일사일 다문화(결연식, 워크숍, 사업보고</p>

	<p>진행. 5가정 7기관 참여)가 있음. 컴퓨터자격증 취득반-아래한글: 65회기. 엑셀: 656회기(52명), 운전 면허취득 지원반: 학과진행, 10회기(21명).</p> <p>다문화강사 파견: 다문화강사 18명 105회기 (26,476명), 다문화강사 자조모임 7회(70명), 통역사 자조 모임, 3회(30명). 방문지도사 자조모임.(10회,100명), 출신국 별 자조모임(베트남 자조모임 3회-중국자조모임 3회, 필리핀 자조모임 2회. 나눔봉사단(4회, 30명) 등 활동이 이루어짐.</p>
--	---

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용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인 형태의 참여 운용은 어려웠고, 체험이나 행사 등의 부정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배우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생활로 바쁘다고 함.

(질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여자 A	<p>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체험하는 것은 좋지만 행사성 프로그램에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으므로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임.</p> <p>가족동원이 어려운 이유는 남편은 한국 사람이라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남편들을 동원하는 것이 때로 바쁜 남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임. 다문화가족협회는 지원 재원이 없으므로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정도임. 그러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친목차원에서 다문화가족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방안을 찾고 있음.</p>
참여자 B	<p>소풍, 캠프, 여행 등의 문화행사에 가족들의 참여가 활발한 반면, 부모교육이나 부모교육 등의 꾸준한 교육은 경제활동 및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가족의 참여가 매우 낮음.</p>
참여자 C	<p>자녀들 방학기간을 이용한 가족캠프 정도이며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이므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p>
참여자 D	<p>다문화자조모임은 농촌지역이라 농번기에는 가족(부부)참여가 어려움. 가족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으로 참여 기피, 여성이 다수 취업한 상태이므로 지역</p>

	<p>적인 어려움이 있음.</p> <p>한국문화체험, 가족현장체험: 체험과 여행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에게 흥미와 욕구충족,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줌.</p>
참여자 E	<p>가족 사랑의 날, 행복가족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체험, 어린이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지역문화축제, 시민체육대회 등 지역행사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p>
참여자 F	<p>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가족 사랑의 날’과 ‘부부교육’, ‘부모교육’, ‘연말 행사’, ‘지역탐방’ 등이 있음.</p> <p>서천군 이주여성 105명 대상의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가 35명(33.3%), ‘한 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다’가 29명(27.6%), ‘가끔 참여한다’가 20명(19.0%), ‘자주 참여한다’가 4명(3.8%) 순으로 가족과 함께 동반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p> <p>그 이유를 다른 문항을 통해 추론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중하계층으로 주말에도 거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활동시간이 많으므로 센터의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측됨.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일부 개발되었으며,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부부나 시부모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회성의 문화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p>
참여자 G	<p>가족통합교육으로 가족캠프를 1박2일, 혹은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인기가 좋아 참여율이 많지만 배우자교육을 센터에서 강의식으로 진행할 때는 모이기가 어려워 사정하다시피 해서 교육을 진행 함.</p> <p>모이기가 힘든 이유는 시간대가 맞지 않기에 저녁에 하는 경우에는 식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 과감하게 식사비를 지출해 쓰기도 하는데 저녁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게 끝나게 되고 토요일 오후에 하여도 여전히 참석률은 부진한 상태임.</p>

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 임. 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글교실 등 지원 사업 위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한 참여가 있으나 행사성 지역사회참여에는 부정적인 의견.

- 문제점과 한계점으로는 지원정책 사업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참여가 낮은 현실은 이주민들을 교육 및 서비스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지 못하는 정책·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함. 지원사업의 사업평가 방식이 실적(숫자) 및 보고서 위주여서 꾸준한 역량강화나 교육사업보다 행사성(체험사업), 일회성 사업(축제)에 투입이 큰 문제점.

(질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또한 어떤 문제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p>참여자 A</p>	<p>지원정책은 지역사회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협회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볼 때 우리 다문화여성들에게 강사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교육이었고 유익한 정보였음. 적절하게 필요한 분야를 이끌어 줄 교육과 지원정책으로 이들을 이끈다면 지역에 필요한 훌륭한 리더들이 생길 거라고 믿음. 그러나 문제는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이 문제로 보임.</p> <p>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다문화여성들의 전문지식과 한국인 정서의 한계를 넓히는 작업이 필요함. 각종 프로그램이 다문화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연결된다면 참여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활성화 될 것임. 멘토링을 통해 보여 지는 현실에 부합하는 일자리교육과 문화에 맞는 교육과 한국교육을 접목시킨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임.</p>
<p>참여자 B</p>	<p>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향하면서 한 교육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됨</p> <p>문제와 한계로는 이주민들을 교육 및 서비스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정책·제도 주민의식,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평가 방식이 실적(숫자) 및 보고서 위주여서 꾸준한 역량강화나 교육사업보다 행사성(체험사업), 일회성 사업(축제)에 투입이 큰 점, 지역사회 문제 등에 이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구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점.</p>

<p>참여자 C</p>	<p>이주여성들 끼리만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됨으로 서로의 유대감은 증대되지만 지역사회적응의 장애가 되기도 함.</p> <p>다문화와 비 다문화가 서로 통합되어 진행되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여성에게 한국 사람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다양한 인적자원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두려움을 최소화 시켜야 함.</p>
<p>참여자 D</p>	<p>한국어교육이 중복교육(센터운영, 어울림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짐</p>
<p>참여자 E</p>	<p>만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없다면 그들이 지역사회의 어떠한 현장에 활발하게 진입을 할 수 없었을 것임</p> <p>지역 단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선심성으로 난립(그야말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하다 보니 오히려 이주여성들에게는 무엇이 어떤 것이 정작 자신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음.</p>
<p>참여자 F</p>	<p>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에 2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이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등 이주여성들과 그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참여는 양의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p> <p>다문화정책을 정책방향성의 차원에서 포섭과 배제의 기준으로, 집단 정체성의 차원에서 명확함과 불명확함의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할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는 대표적으로 동화유형 정책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 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개입은 적극적이고 다각적임.</p> <p>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글교육, 컴퓨터 교육, 강사양성, 사회적 일자리 지역축제 등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현 시점에서는 확보된 인력부족과 지원체계들이 확고히 확립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시점으로써,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p> <p>보다 발전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주여성들의 지역별, 출신국 별 다양한 욕구 반영이 이루어져야하며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미래전략 대비 또는 적극적 인재육성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다문화학교가 유치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함.</p>

	<p>한국인 배우자와 부부가 함께 자주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이나 상담문화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내적인 자발적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참여방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에 참가하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 쉬우면서도 실제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가능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문화 활동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 또한 결혼생활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p>
<p>참여자 G</p>	<p>다문화강사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인 다문화강사 활동은 인기가 좋기는 한데 3년 이상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놀이와 활동 등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다문화강사들이 지속적이지 않다는데 있음.</p> <p>개인일로 바쁘고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인력들을 뽑아야 하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사업임. 강사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 난감할 때가 있음. 계속해서 강사로서 지녀야 할 교육 등을 보수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음. 지역이 작다보니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듦. 사업비가 충남 것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게 하면 인근지역을 대상으로도 추진 할 수 있어 폭넓은 사업이 되리라고 봄.</p> <p>일사일 다문화사업의 경우 지역 내 기관의 참여로 결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센터에 관심을 갖는 기관이 증가, 자원봉사와 사업에 대한 기관 참여가 확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센터 내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커짐.</p> <p>다문화가정의 경우 부익부, 빈익빈의 차가 커서 경제적으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으며 이들 가정의 경우 부의 부재, 또는 부모의 부재가 많은 편으로 이를 위한 양육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p> <p>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기간이 짧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센터에서 배우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어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p>

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현황

- 다문화업무에 있어 거버넌스의 협력은 민간차원 혹은 기관차원이냐 하는 구조 형태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기관의 정체성, 주변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누구와 연대하느냐하는 관계나 시야에 따라 참여자들의 답이 달리 나타남.
- 참여자 A는 지역의 기관과의 관계를 들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 참여자 B는 민간단체 주체로서 정책기관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 참여자 F와 G는 정부기관으로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E의 경우 지역 내 다문화업무 기관 간 중복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거버넌스들 간의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선점을 지적하였음.

(질문: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개별 기관이나 모임들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p>참여자 A</p>	<p>이주 여성들이 손님대접 받지 않고 맘 편하게 모이고 자신들의 주체가 되고 싶어 모인 민간차원의 협회와 지역기관의 협력체계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그 이유는 서로의 역량을 키우고 소통하며 협력하는게 아닌 행사에만 신경쓰다보니 진정한 다문화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부족하다고 봄. 여성들은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고 받는데 익숙하고 또 다니더라도 행사내용도 모르고 선주민들과 동등한 입장이 아닌 보호받고 항상 이 나라 손님 대우에 대상화되고 소외됨.</p>
<p>참여자 B</p>	<p>개별 기관이나 모임들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천안지역의 민관 거버넌스의 예로 사회복지 계획과 수립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들 수 있음. 1기~2기 4년간 본 기관만 지역복지분과, 고용·주거·자활분과 안에서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예산을 논의 해 오다 3기가 시작된 올 9월부터 ‘다문화분과’를 구성해 7개 다문화 지원기관(민간단체 6개 기관, 공공부분 1개)참여하고 있음.</p>

	<p>개별기관별로 활동의 차이가 크고, 차별화된 사업보다 중앙으로부터 요청되는 필수사업으로 정부위탁운영기관들의 분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의 다문화관련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석·모니터링해 보는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함.</p> <p>여성단체 연대 활동,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참여예산네트워크 활동, 이주인권연대 활동 등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적 관계의 거버넌스는 성공적임. 이주민 당사자들이 기관의 대표자, 이주민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음.</p> <p>언어적 한계가 있지만, 단체 및 활동가들의 이해와 배려로 이주민들의 활동역량이 향상되고 있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당사자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p>
참여자 C	<p>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각자 지향하는 목적이 다름으로 협력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주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나 힘 있는 리더들의 부재로 자신들의 문제에 수동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음.</p>
참여자 D	<p>지역특성상 한정된 다문화가정에서 인구수에 비해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중복된 지원이나 행사에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다문화화를 위한 지원이 아쉬움.</p> <p>기관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는 시점으로 앞으로 다문화센터와 지역기관의 협력으로 중복 수혜 되지 않고 알찬 정보교환으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다문화여성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p>
참여자 E	<p>각자 나름들의 해치워야 하는 어떤 행사일 뿐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식의 지원이 그들의 정착에 필요한 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된 후에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짐.</p>
참여자 F	<p>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간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기관, 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있음.</p> <p>현재 업무협약이 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12개, 사회복지기관 7개, 의료기관 4개, 기업체 3개, 기타 10개로 총 36개소의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p> <p>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지역자체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측면이나, 혹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 관리적 개념인 뉴거버넌</p>

	<p>스를 구축하여 지역 속에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여, 고루 어우러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함.</p> <p>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계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시급한 문제임.</p>
<p>참여자 G</p>	<p>현재 지자체와도 연계가 잘되고 있는 편이고 각 기관과도 연계가 잘되어 있으며 협약도 많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임. 아쉬운 점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인적사항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주소가 관리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지도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발로 뛰어 다문화가정을 찾아내는 것임.</p> <p>관리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인적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청 군청등 주소를 옮길 때마다 관리되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p>

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제언

- 다문화가정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
-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여 이주여성에게 많은 인력풀을 형성 해 주고 이를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이 아니라 비 다문화(혹은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함께 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함. 지역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인식개선 담론형성이 필요함.
- 그간 해오던 일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나아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육아문제 개선, 여성의 직장 내 복지혜택과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선출 제언.

(질문: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p>참여자 A</p>	<p>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당사자들이 모여 그 동안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요즈음에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필요치 않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을 서야함.</p> <p>초기 신혼부부 인성교육으로부터 한국 적응기, 태아 자녀 교육, 취업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많았으면 함.</p>
<p>참여자 B</p>	<p>서비스 및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주민들에 대한 시선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시선으로 바꾸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종, 국가, 종교, 문화를 넘어서 인간존중 및 평등, 인권의식, 다양성의 교육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p> <p>지역사회는 이주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의 구조 안에 이주민의 구성하도록 함.</p>
<p>참여자 C</p>	<p>동등한 위치에서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여 이주여성에게 많은 인력풀을 형성 해 주고 이를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지원 받기만 하는 이주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힘 있는 리더의 양성을 통해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어 그들의 힘을 지역사회에 보여줘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함.</p>
<p>참여자 D</p>	<p>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직장 내 복지혜택(생리휴가, 월차,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일자리 마련.</p> <p>지역의 단체들이 다문화가정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다문화 대표선출 및 관심 필요, 다문화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p>
<p>참여자 E</p>	<p>어떤 인센티브형식이 아닌 같은 주민으로 인식하고 함께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간다면 받아먹는, 당연히 주어야한다는 식의 사고체계로 가지는 않을 것임.</p>
<p>참여자 F</p>	<p>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설계를 위한 삶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구축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p> <p>지역차원의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각 자치단체 여성복지 관련 부서를 비롯한 범부서적 차원의 연계와 대학, 교육지원청,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p>

	<p>계획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 및 지역의 학생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지역축제 및 지역행사에 언어 관련 자원봉사 활동과 본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함.</p> <p>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문화수용자 또는 복지수혜대상자가 아니라, 본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제고하여야 함.</p> <p>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방과 후 교육 등의 외국어강사로 활용과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민들레참찬단운영 등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임. 한국인 남편이 함께 결혼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좀 더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p>
<p>참여자 G</p>	<p>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지만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면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아직 배워야 할 다문화사회 이해교육도 있고 각종 자격증 과정과 요리등도 배워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남편도 의사소통이 좀 안되더라도 참겠지만 나중에는 답답해 할 것이고 태어나는 자녀들을 교육하기에도 버거운 한국어실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이 안타까움. 좀 더 많은 공부와 실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의 길로 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좋겠음.</p> <p>남편들의 사고방식과 시부모님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매스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함. 국제결혼을 할 때 남편들에게 일정시간 배우자교육을 강제로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아내 나라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아내 또한 한국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혼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왔으면 함.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고생하는 것을 봐도 안 좋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나 남편도 안됐기는 마찬가지이며 요즘은 며느리가 도망갈까 봐 참는 시어머니도 많이 계시고 남편도 많이 있어 가족상담도 점차 늘어 가리라고 봄.</p>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및 논의 81

제2절 정책적 제언 8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및 논의

1.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충남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주여성 집단과 실무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음.
- 이주여성 참여자의 평균거주 기간은 7.9년으로 언어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에 대체로 어려움이 없는 집단이었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간은 3.4년으로 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집단이었음.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교활동, 자녀양육이나 가정생활 등 사적영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진 집단임.
- 참여자들의 정주 시기는 최소 3년에서 17년까지 다양했으며 다수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자기성장과 조력자로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었음.
-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 자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의 외국인을 돕는 이타적인 실행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참여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단계는 Berry가 제시한 문화적응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해결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 실무자 집단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나 육아, 생활정보 관련 교육 등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이나 모임 프로그램으로 이주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음.
- 실무자 집단 참여자들은 다문화 관련 업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민과 관의 담당 실무자들로서 다문화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과 관의 다른 구조에 의해 같은 주제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나 혹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 민과 관이 함께하는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매우 취약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음.

2. 논의

1) 이주여성 집단

가. 참여자들의 배경

- 참여자 20명 이주여성은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9개국 출신의 여성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음.
- 참여자들의 평균 한국거주 기간은 7.9년으로 대체로 한국사회 적응에 안정된 집단이며, 자신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교류와 참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집단임.

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과 경험

-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형태는 공적영역(자조모임, 다문화업무, 다문화강사, 통번역, 교육, 지역행사, 상담 등)과 사적영역(출신국별 친목모임, 친구모임, 가족모임 등)의 활동으로 나누어짐.
-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재소자 상담,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 봉사활동, 이주여성 상담, 종교 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신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음.
- 참여자들 중에 공적인 사회활동 역량을 가진 여성들은 외국인노동자나 재소자를 위한 무료상담이나 통번역, 종교 활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들을 돕는 이타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자기성장을 이루고자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
- 사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목을 중시하고 그들의 활동이 한국어능력 증진, 육아, 외로움 해소와 돈벌이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었음.
- 농사일을 하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로 농사철을 제외한 계절을 이용하여 요리, 한국어 교육, 만들기 등 생활정보 습득 위주의 단기성 교육이나 친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 지역사회 참여 선택 기준과 참여의 좋은 점

- 참여자들 모두 한국살이에 잘 적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의 기준은 자신의 성장, 공감, 참여자들, 내용, 의사소통 일자리연계가능성을 들었음
- 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참여를 통해 자기능력을 신장시키며 개인적인 외로움, 소외감을 극복하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부족한 문화자본, 인적자원과 사회적 지지망을 스스로 연결하고 구축하려고 하는 선택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참여의 좋은 점으로 친분 쌓기, 한국어 능력증진,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 도움, 공감대 형성, 정보공유 등을 들었으며 활동을 통해 인적자본을 쌓고 육아지원, 한국어 가정방문지도사, 다문화강사활동의 기회 등 정보 습득을 활용해 실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 가족의 지지 여부와 그에 따른 활동 경험

-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과 경험은 배우자의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예컨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공적인 활동을 인정받고 지지받는 여성들은 이타적인 활동에 참여가 용이하였고, 남편으로부터 활동내용에 대해 허락과 지지를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규정된 돌봄노동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며 따라서 사회활동에서 제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은 행사성이나 동원되는 지역행사가 많아 적응초기에는 참여했지만 해가 갈수록 자신들을 대상화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사로 나타남.

마.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의 어려움과 기대

-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동시에 봉사활동이나 상담활동 등을 하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와 도움과 양육의 부분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우자도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요청 상황 발생에서나 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로 인한 통번역이 필요한 상황의 주말이나 밤 시간의 요청 발생 시에는 가정주부로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함. 그들은 지금의 현실이 바쁘고 어렵지만 자기역량을 키우기를 원함.
- 사적인 영역에 머물며 지역사회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지가 있다 하여도 대부분이 남편과 자녀를 위한 돌봄 노동을 담당자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배우자들은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의 수혜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아내의 지역사회 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지, 허락하는 형태를 보이며, 대부분의 배우자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바쁨 등을 이유로 들며 동참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랐으며 일부 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쏠림현상을 지적하거나 이주민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에 대해 지적함.

2) 실무자 집단

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내용

- 각 기관이나 센터의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여성가족부의 사업내용의 틀 안에서 각 지역의 행사를 추가하여 구성되어 있음. 민간차원의 이주민 센터와 다문화가정협회에서는 각 지역 현실과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여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용하거나 자발적인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음.

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용

-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인 참여의 형태는 어려웠고, 체험이나 행사 등의 부정기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배우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경제생활로 바쁘다고 함.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동원되는 행사성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들로 하여금 참여에 대한 거부감과 대상화를 고착하여 다문화가족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지 못하는 요인이 됨.

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

-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향하는 정책과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를 실제로 구현하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음.
- 문제점으로는 다문화사업의 중복성에 관한 지적, 다문화와 비 다문화 집단의 분리된 참여활동, 행사성, 선심성의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 개선이나 지속적인 다문화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 효율 저하 등을 지적함.
- 진행되는 다문화 지원 사업이 입국시기가 다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흐름이 확인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흐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진행의 매뉴얼이 부재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함.

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현황

- 거버넌스의 협력은 민간차원 혹은 기관차원이나 하는 구조 형태와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기관의 정체성과 주변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누구와 연대하느냐하는 관계나 시야에 따라 참여자들의 답이 달리 나타남. 즉,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협력 체제로 구조화하여 다문화주민 주도형의 거버넌스를 이루려는 협력적인 구조지향보다는 다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타기관의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점에만 주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제언

- 다문화가정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며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임. 또한 다문화가족만

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활동이 아니라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나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함.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사회적 담론형성이 필요함. 그간 해오던 일방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나아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육아문제개선 여성의 직장 내 복지혜택과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주민 리더육성이 필요함.
- 현재의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적응 돕고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데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음. 그러나 지역행사에서는 동원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교육의 대상으로만 대상화 되는 문제는 이주민들의 주체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동등하게 권한을 부여해서 지역의 문제에 동참하고 해결하는 논의 구조에 포함시켜야함.

제2절 정책적 제언

-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로 이끄는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평등한 구조로서 다양한 이주민 인적 자원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과 동시에 이주민들의 다양한 정착기 고려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충남 지역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원 정책, 충남 이주민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 충남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형 지역사회 참여지원 정책을 제언함.

1. 정책 방향

-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지원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중복 프로그램 조율과 지역 행사에 다문화가족을 동원하는 형식을 지양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논의를 이끄는 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져야함.
- 지역의 필요와 이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민관합치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담보된 지역사회 참여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다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 다문화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인종적·국가적 편견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정책 연구와 홍보가 뒤따라야함.
- 다문화가족을 수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복지시야에서 벗어나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으로 이끌어 갈 지원방안이 필요함. 글로벌시대의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주민의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주민의 인적 인프라를 토대로 기업체 대상의 통번역 인재풀 구성, 이중 언어 지

원, 이주민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지지기반을 열어갈 리더를 발굴함.

- 우리사회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에도 이주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나 자격을 부여함. 아울러 본국에서의 자격증을 살릴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확장하여 다양한 인적 자원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입국시기가 다른 이주민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원 사업에서도 단계별로 다른 지원과 체제가 갖추어져야 중복되는 사업에서 탈피하고 효율성을 가져옴.

2. 정책 과제

1) ‘충남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정책’

- 이주여성들은 입국시기가 다르지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삶의 경험이 지역 속에 밀착되어 있음.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접근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업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수요를 담은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다문화사회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용과 이주민과의 공생을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므로(이형하, 2010),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이끄는 다문화화정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다문화지원 정책을 주된 바탕으로 하되 정부, 지자체와 센터 및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다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연계하는 지원정책 모델이 필요함.

- 충남도가 추진하는 2012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시군다문화사업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 서비스지원)에 다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의 문제에 민관이 합치하여 다문화 지원 추진 사업에 효율·효과성을 높임.

<표 30> 2012년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1

사업명	사업개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일자리경제 정책과)	▶ 천안, 아산시(다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 지원센터 운영, 노동·법률 상담 등
시군 다문화 사업 컨설팅	▶ 대상 : 16시군 ▶ 시군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 추진사업을 점검, 향후 추진사업 등에 대한 제언 정책자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 이민자 등 ▶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 범위 (식의약안전과)

2) ‘충남 이주민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정책’

- 이주여성을 온정과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야에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안정적인 다문화사회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주민들이 가진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적인 인재로 활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체계가 체계화되어야 함.
- 충남도가 2012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언어영재교실,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운영, 다문화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확대 운영, 자원 통·번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충남이주민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확대함.

<표 31> 2012년 충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사업명	사업개요
언어영재 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소(이중강사 9명) ▶ 초등학생 및 미취학 다문화자녀에게 부모나라의 언어·문화 교육,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45명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 내역 : 채용기업에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5개교(초·중·고) ▶ 결혼이민자를 활용 관련 자격 소지자를 학교에 배치- 영어에 이어 중국어확대 시행(교육법무담당관)
자원 통번역사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8명 ▶ 통번역사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에게 통번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3) ‘충남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형 지역사회 참여 지원 정책’

- 이주민들은 각기 다른 입국시기를 가질 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른 적응의 유형을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각 다문화 지원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주로 이주민의 정착 초기에 필요한 적응과 한글교육 등 한국문화동화와 수여형 서비스 사업 성격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녀양육기와 가족내의 갈등발생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사회이동 희망 단계 등 이민자들의 현실을 고려되어야함.
-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역사회 참여 모델로서 .다문화 가족의 결혼전후, 육아기를 위한 사업과 가족전체의 통합을 도모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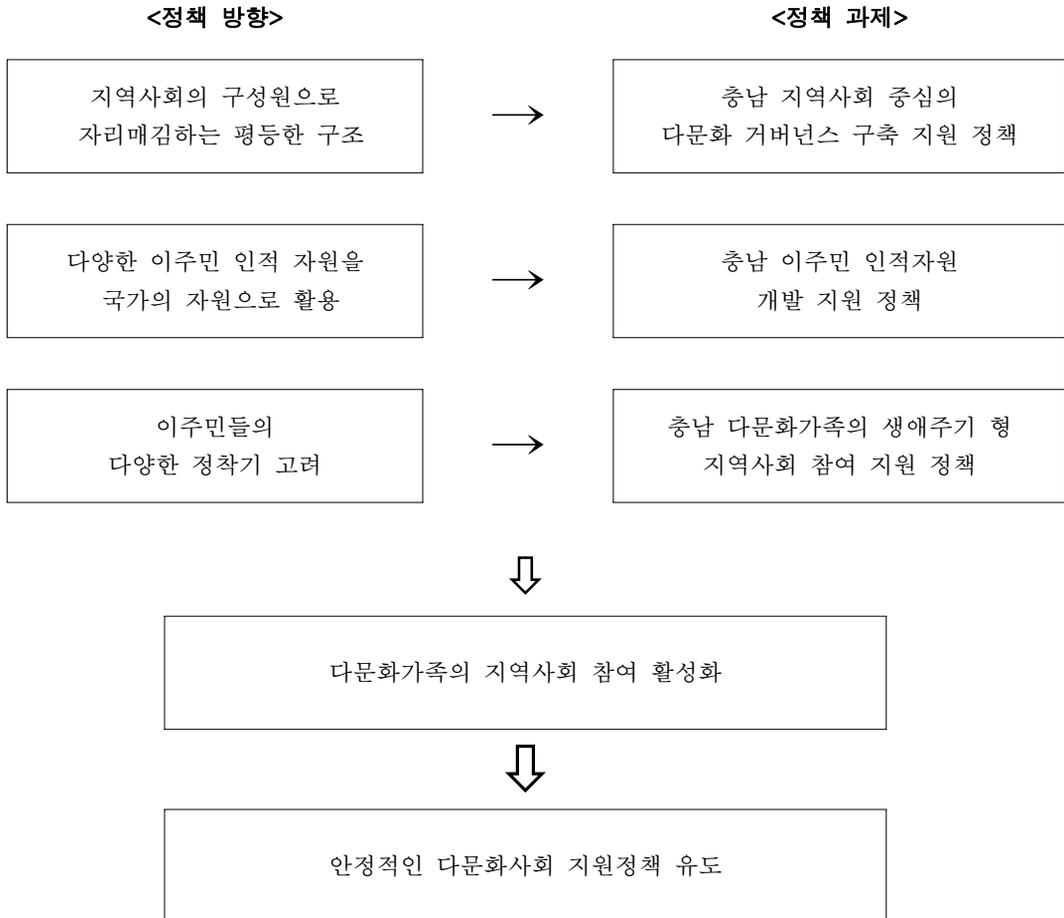
- 충남도가 2012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예방 등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자녀를 위한 즐거운 도서관 설치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생애주기형 지역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음.

<표 32> 2012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3

사업명	사업개요
가정폭력 예방 등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 희망 남성, 국제결혼 부부 ▶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소(통·번역사 18명)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등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시군(27가족 81명)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 자녀를 위한 즐거운 도서관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좀 더 가까이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올바른 인재 육성 ※ 센터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 방문 지도사가 희망도서 배달서비스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입국초기(2년 미만)자 ▶ 내용 : 기초 단어 및 문장, 간단한 표현(40시간씩 3회 운영)
부모-자녀 함께 하는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 ▶ 내용 : 초등학교 교과 위주의 현장학습을 통한 학습능력 증진 및 놀이, 퀴즈, 미션, 가족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순화,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결론과 제언을 통해 도출된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유도 정책으로 이끄는 것이다.

<표 33>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참 고 문 헌

- 김남일(2007).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 방향”,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 김영란(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 김은숙(2010).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70호.
- 김현미·김민정·김정선(2008), 생활세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 문경희(2006).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 박재규(2010). 경기도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양순미·최규홍·강경화(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 활동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 지역사회 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양애경 외(2007).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다민족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대위원회.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 성별 분업, 문화 혼종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 이형하(2010).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연구, 어울누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경구·한건수(2007).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황정미 외(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Berry, J.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Studie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9(3). 697-712.
- Berry, J. W., and T. Blodel(1982). “Psychological adapt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81-88.
- Berry, J. W., and U. Kim(1987). “Accultural and mental health” Dasen.P, Berry, J. W and N. Sa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 Castles, Stephan(2002), “Migration and Community Foundation under Condition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36-4:1143-1168.
- Castles, Stephan and A. Davidson(2000). *Citizenship and Migration*.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 Minde,T.(1985). “Foreign student adaption at Queen’ s Univ.” Unpublished B.A. Hoonoure Thesis, Queen’ s University.
- Ireland, Patrick(2004). *Becoming Europe: Immigration, Integration, and the Welfare State*,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Lister.
- Redfield, R Linton, and M. J. Herskovits(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38, 149-152.

사이트

- 통계청(2011). 2011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 행정안전부(2011).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부록 1

이주여성 대상 지역사회 참여 현황 질문지

이름	나이	자녀 수() 자녀 나이()
남편나이()		시부모와 함께 거주()
국적	현재직업	남편의 직업
학력		본국에서의 직업
한국 거주년 수	거주지	연애결혼() 중매결혼() 결혼중개업체() 한국 취업 후 결혼() 종교()
1.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경험 년 수는 얼마 되나요?		9. 배우자는 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지하나요?
2.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과 지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하는 참여내용은 무엇인가요?		10. 남편도 함께 참여하나요? 한다면 어떤 모임이나 활동을 하나요?
3. 주 혹은 달 몇 회 정도 참여하는가요?		11. 가족 및 주변사람들은 지지하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지원센터나 다문화 관련 단체에 과거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5. 모임에서 주로 만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3. 센터나 단체 활용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6.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4. 현재 센터나 단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사회참여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15.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8. 사회참여 활동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16.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부록 2

실무자 대상 지역사회 참여 현황 질문

1. 귀하의 센터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각 모임이나 프로그램 당 참여 인원은 대략 어떠합니까?
2.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한글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양성, 사회적 일자리 지역축제 등)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떤 문제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4.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시민단체, 개별이주 여성 자조모임 등 관련된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개별 기관이나 모임들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상기 질문들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1-05 연구보고서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행자 : 민 경 자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처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학봉리 191-5)

전 화 : (042)825-1823 팩 스 : (042)825-1832

인쇄처 : 조아기획인쇄(042-637-3229)

ISBN : 978-89-94165-48-6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